

E 02-2012-01 | 2012.4 |

제14권 제1호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에서 북한의 최근 농업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59 전송 02-968-7340

- 내용 문의: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남민지	mj0801@krei.re.kr	02-3299-4359

목 차

1 포커스

- ▶ 김정일 사망, 2.29북미합의, 로켓발사, 그리고 대북 식량지원 3

2 2012년 특별기획: 지자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실태

- ▶ 경기도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17

3 북한농업 동향

- ▶ 북한매체 보도 동향 33
- ▶ 국내매체 보도 동향 49

4 농업교류협력 동향

-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79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79
 - 2. 대북지원 동향 92
 -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94
-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98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98
 -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103
 - 3. 북중 교역 동향 108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 ▶ 유기농법과 농업생산 115
- ▶ 농업부문에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117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1

포커스

김정일 사망, 2.29북미합의, 로켓발사, 그리고 대북 식량지원

김정일 사망, 2.29북미합의, 로켓발사, 그리고 대북 식량지원

김 영 훈¹⁾

1. 머리말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대 중후반 가장 심각했다. 그 후 북한은 식량생산부문에 대한 국내 자원의 집중 배분과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지원에 힘입어 식량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크게 감축됨에 따라 식량난이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이 와중에 작년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국제사회는 장기간 군림했던 절대 권력의 공백에서 북한이 혼란에 빠지고 그 여파로 동북아 정세에 불안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 우려와 달리 북한은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김정일 사망 전부터 이어 오던 미국과의 대화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맞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을 맞아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이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는 또다시 긴장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그 일련의 과정을 재검토해 봄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과 북한의 올해 하반기 식량사정을 조심스레 점쳐 보고자 한다.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 정부는 즉시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도 북한 내부의 변화 조짐을 포착하려 촉각을 곤두세웠다. 오랫동안 사회를 지배해 왔던 절대적 리더십이 사라진 북한의 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yhoon@krei.re.kr

력 관도에 커다란 공백이 조성되고 그 공백을 속히 메우지 못한다면, 북한의 급변사태와 뒤이은 한반도의 요동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것은 12월 17일 아침이고 공식발표는 12월 19일 정오이다. 사망에서 발표까지 만 이틀이 걸렸다. 그 사이 북한 내에서 특이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것은 사망을 발표하기 전 수습해 놓아야 할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정리가 북한 권력체제 내부에서 큰 말썽 없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망 발표 후에도 북한의 정치와 사회는 안정된 상황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국제사회는 애도정국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주변국이 우려하는 도발보다는 내부에서 새로운 권력체제를 공고화 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주변국들도 북한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강력히 희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은 즉각적으로 조의를 표하는 한편 한반도의 안정을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도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권력 교체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김정일 사망이 알려지기 하루 전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과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관한 북미회담 성과를 논평하며 나흘 후(12월 22일) 개최될 베이징 회담에서의 타결소식을 미리 예고한 바 있다. 이 상황은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의 해빙을 점치게 할 수 있을 만큼 새롭고도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당시의 전망은 북한 내부 정국의 안정과 주변국들의 희망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이 급격히 요동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김정일 사망과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부족 문제는 특히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3. 올해 초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

2011년 10월 북한의 작황을 현지에서 조사한 국제기구(FAO/WFP)의 실사단은 그해 11월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가 예년에 비해 심화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작년 말 쌀과 옥수수 등 주작목이 비교적 좋은 작황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벼 수량은 ha당 4.34(쌀 2.82톤)톤으로 재작년 4.26(쌀 2.77톤)톤에 비해 약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배면적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벼 생산량도 재

작년에 비해 2% 증가하여 248만 톤(쌀 161만 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산량 상승은 주로 비료 투입의 증가, 관개와 농업동력 상황의 호전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조건에만 의존한다면 수량 증가는 더 크게 나타났어야만 했다. 그러나 불리했던 기후조건으로 인해 투입 증가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옥수수의 재배 여건 역시 벼와 다르지 않았다. 2011년 여름철의 침수, 일조량 부족, 태풍으로 인한 수분 저조 등 기후 조건이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평균 수량은 ha당 약 3.7톤으로 재작년의 3.3톤에 비해 10% 정도 상승했다. 높아진 수량의 결과 2011년 가을 옥수수 생산량은 186만 톤으로 2010년에 비해 약 11% 증가했다.

2011년 주수확기의 감자 생산량은 약 12만2천 톤(곡물 환산치)으로 2010년에 비해 29% 감소했다. 2012년 봄감자 생산에 대한 당시의 전망은 씨감자 부족으로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국제기구 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말 현재 씨감자 공급은 수요의 60% 이하에 불과하다고 전해졌다. 이는 조사 당시 북한농촌 현장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부족한 씨감자의 수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겨울밀도 2010년에 비해 종자가 부족했다. 따라서 겨울밀 파종도 목표치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족한 부분은 봄보리 종자를 수입해 파종해야 한다고 계획하기도 했다. 그 당시 계획했던 종자 수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적기 파종이 실현되었다면, 2011/12년 밀과 보리 생산은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말에 국제기구(FAO/WFP)는 2012년 전반기에 생산될 밀, 보리, 감자를 더하여 2011/12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약 46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식량 생산량은 2010/11년에 비해 약 8.5% 가량 증가한 것이다.

북한의 연간 곡물 소요량은 약 540만 톤이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74만 톤의 곡물을 도입해야 한다. 2011년 곡물 도입 요구량이 108만 톤에 달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올해의 식량사정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년에 비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 실사단에게 32만 톤 이상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곡물의 수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부족한 식량의 양은 41만여 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식량부족에 직접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수도 크게 줄어들어 북한 당국의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

4. 미국과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가. 2.29 합의와 미국의 식량지원

김정일 사망 전 이미 시작된 북미간 대화는 사망 후에도 계속되어 지난 2월 29일 그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제3차 북미고위급회담 합의 내용의 골자는 우리농축수산물(UEP)의 잠정 중지, 핵·미사일 실험 유예 등 비핵화 사전 조치, 미국의 대북 영양식(식량) 지원 등이다. 이 합의사항 중 영양식 지원에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첫째는 ‘식량 지원(Food Assistance)’이 아니라 ‘영양 지원(Nutritional Assistance)’이라 명명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분배 모니터링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영양식 명명은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취약계층 실태 보고에 의하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 취약지역의 취약계층부터 위기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취약지역은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이며 취약계층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등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에 참여한 국제기구(FAO, WFP)는 이들 취약계층에게 우선 영양식과 보건의료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북미 합의의 ‘영양식’ 지원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인도적 측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원 식량의 전용 시비를 불식시킨다는 의미가 있다.²⁾

지원물자의 모니터링 문제는 2.29합의 후 3월 7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영양식 지원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미 양측은 24만 톤 규모의 영양보조식품 전달 시기와 방법, 모니터링 방식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분배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30~50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은 기존의 모니터링 수준을 제시하면서 견해차를 보였다. 그러나 영양식 지원 회담의 미국측 대표였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회담 후 미국이 우려했던 모니터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모니터링 규모와 방식을 보장받았음을 시사했다.

이번에 합의된 지원 식량 분배 모니터링 방식과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8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대강을 유추할 수 있다. 2008년 5월 미국은 1년간 50만 톤에 이르는 규모의 원조를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40만 톤은

2) 영양식 지원에 관해서는 본 글의 자료1 참조

WFP를 통해, 나머지 10만 톤은 미국의 NGO컨소시엄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었다. 당시 대북 식량지원은 ‘적절한 수령인에게 원조물품이 전달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당한 접근과 감시체계의 개선’에 관한 북미 간 합의에 기초한 것이었다. 2008년 당시 합의에서는, 분배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가능범위를 기존의 50개 군(郡)에서 156개 군(WFP 131개, NGO 25개)으로 확대하고, 상주요원의 수는 10명에서 총 75명으로 확대해 기아의 위험이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2008년의 대북 식량지원 협약 내용은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중단되었다. 그러나 당시 국제사회와 북한이 합의했던 분배 모니터링 보장은 최근 합의한 영양식 지원 모니터링 보장 수준을 가늠케 한다. 2008년의 식량지원 규모에 따른 모니터링 보장 수준을 최근 합의한 24만 톤 지원규모에 맞추어 적용한다면 접근가능지역 수와 감시인원의 규모를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³⁾ 다만 북미 양측은 모니터링을 둘러싼 2009년의 다툼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을 개연성이 높다.

나.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의사 표명

지난해 말 외신(도쿄신문)이 중국과 북한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 하루 뒤인 2011년 12월 20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주재한 최고 지도부 회의에서 북한에 식량 50만 톤과 원유 25만 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기정사실화 되어 전해지기 시작했다.

곧 이어 국내의 언론매체들도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 주요 내용은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북한의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나 전례나 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식량 지원은) 수십만 톤이 될 것이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혀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중앙일보, 1.19).

중국은 올해 2월 27일 외교부의 정례회견을 통해 자국의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확인해 주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북중) 양측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 유지는 물론이고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3) 이 내용에 관해서는 본 글의 자료2 참조

노력하고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지는 데 동의했다”면서 “조선에 대한 식량원조 문제도 토론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관련된 각 측과 국제사회가 조선에 각종 형식의 도움을 주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주변국들도 동참하기를 희망했다(동아일보, 2.28).

중국은 김일성 사후 1996년 식량 지원을 필두로 북한에 꾸준히 식량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곧이어 발표될 제3차 북미고위급회담의 합의(2.29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과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의 조기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공개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천명한 만큼 지원규모도 과거에 비해 많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

5. 장거리로켓 시험발사, 미국의 식량지원 보류

2011년 말 북한은 절대 권력자의 사망이라는 엄혹한 상황에 봉착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연초의 상황은 크게 변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었다. 그 전망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다. 첫째, 작황 호전으로 국내 식량공급 여건이 예년에 비해 좋아졌다. 둘째, 2월 29일 24만 톤의 대북 영양(식량)지원 약속이 포함된 북미 고위급협상이 타결되었다. 셋째, 50만 톤에 달하는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의향이 차근차근 현실화되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국제사회의 대북 유화조치와 후속 지원이 뒤따른다면, 북한이 식량공급 상황은 물론 전체 경제상황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2.29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암초를 만나게 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국의 명절(4.15 태양절)에 맞추어 장거리로켓 시험발사를 강행한 것이다. 미국과 유엔은 사전에 경고한 바대로 북한의 로켓발사와 식량지원 여부를 연계시키고 새로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천명하게 되었다.

4월 13일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은 즉시 대응했다. 미국은 발사 당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밝히면서, 이 도발이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비난했

4) 이 내용에 관해서는 본 글의 자료3 참조

다. 유엔도 발사 3일 만에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비난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제재방안을 협의하여 북한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⁵⁾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한 북미간 접촉은 중단되고 있어 북미관계가 경색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벨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북한도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거론하며 ‘2.29합의’가 무효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상황이 극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미국과 서방세계의 제재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상황 전개로 볼 때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제재는 식량지원 약속의 이행 보류이다. 기대했던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원 보류는 강성대국 진입을 천명한 북한 정권의 향후 행보에 차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국의 식량지원도 북한의 로켓 발사 이전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지원 약속이 실망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이행될 수 있다면 북한은 올해 식량난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강성대국의 체면을 살리는 충분한 식량공급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자료 〉

CRS,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Sep. 9, 2009.

CRS,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Mar. 20, 2012.

UN,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DPRK., 2011.

U.S. Press Statement, U.S.-DPRK Bilateral Discussions, February 29, 2012

U.S. Press Statement, Background Briefing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ebruary 29, 2012

5) 당초 40여 개의 북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성사시키려던 서방의 제안은 중국의 거부로 기각되고, 기존 8개 기업에 3개 기업을 추가한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추가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기업은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Green Pine tree Conglomerate), 조선흥진무역회사이다.

자료 1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영양지원에 대한 입장

1. 주민의 영양 상태에 대한 판단

식량 부족은 결국 영양 부족으로 귀결된다. 북한 주민의 식량소비 패턴을 보면 곡물 이외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은 거의 없고 주로 야채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식량계획 조사단의 평가(2008, 2009, 2011년)에 따르면 일상적인 식단에 단백질, 지방, 미량 영양소 결핍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배급제(PDS) 인구의 평균적인 에너지 소비량은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처 수단이 없는 저소득층 인구집단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조사(Multi Cluster Survey: MICS)에 따르면 북한은 다른 국가에 비해 영양실조가 심각하다. 5세 미만 아동의 32%가 성장 장애, 18%는 저체중, 임산부 및 수유부의 28%는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

영양부족은 산모와 아동의 사망에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북한의 공중 보건 문제이기도 하다. 영양부족은 특히 아동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성장 초기에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 아동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입을 수가 있다. 신장이 최적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아동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최적의 신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IQ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질병 감염의 위험이 높다. 임산부나 수유부의 영양 부족은 산모 사망에 큰 요인이 되며, 저체중 신생아를 출산함으로써 영양실조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저체중 신생아는 출생 후 1주 내에 전염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 높으며, 만성 질환 및 면역체계 이상, 발달 장애를 겪을 수 있다.

2.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영양지원

1995년 이후 WFP는 주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공해 왔다. WFP는 곡물이나 쌀과 같은 곡식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영양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곡물을 가공하여 영양이 강화된 혼합 식량을 기존 배급 식량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WFP의 식량 및 영양 지원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가. 현지 식량 생산

WFP와 북한 간에 영양강화혼합식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 위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WFP는 옥수수/우유 혼합식품(CMB), 옥수수/콩/우유 혼합식품(CSM), 쌀/우유 혼합식품(RMB)과 같은 영양혼합식품 생산과 영양강화 옥수수 및 밀가루로 만든 비스킷 생산을 위해 13개 공장을 지원하고 있다. WFP는 관련된 식품 성분 재료, 미량 영양소, 쿠키 믹스, 기계 부품, 기술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북한 정부는 노동, 전기, 건물, 운송 인프라, 유지 등을 담당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WFP가 공급하는 제품의 가치가 향상되었다. 예를 들어 현지 공장의 비스킷, 쌀/우유 혼합식품, 옥수수/우유 혼합식품 생산 비용은 외국보다 훨씬 낮다. 1kg의 혼합식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비용은 0.8달러에 불과하다. 또 WFP는 영양강화식품의 국내 생산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였으며 지역 식품산업의 역량과 참여를 제고시켰다.

나. 여성과 아동에게 영양 지원

WFP는 모든 임신부와 수유부, 유아원, 탁아소 및 기숙학교의 원생들에게 식량 배급을 제공할 계획이다. 북한의 보건시스템은 도 단위의 대규모 소아과 병원과 군 단위 병원에 있는 소아과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소아과 병원과 군 단위 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있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유아부터 16세 아동 입원 환자들에게 곡물과 혼합식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아과 병원 환자의 간병인도 식량 배급을 받게 된다.

다. 재학 아동

WFP는 현지 생산된 영양강화식품, 곡물, 식물성 기름을 탁아소(생후 6개월~4세), 유치원(5~6세) 아동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적절한 조리 시설이 없다. WFP는 매 등교일 마다 대상 군 소재 모든 학교 아동들에게(7~10세) 영양 강화 비스킷을 제공할 것이다.

라. 동북지역의 기타 취약 그룹

동북지역에 위치한 각 도에서 식량 불안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WFP는 63개 군에서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과 7~10세 아동에게 보조 식량 배급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 긴급 및 구호 활동

북한의 자연재해(홍수, 가뭄, 혹독한 겨울/추위)에 대한 취약성을 감안하여, EMOP는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120일 간 최대 37만 5천 명의 재해 피해자들에게 비상 식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UN,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DPRK., 2011.)

자료 2

대북 식량지원 합의와 분배 모니터링(2008년)

2008년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결정 직후, 북한과 WFP는 북한 내 WFP 및 미국 NGO컨소시엄 상주 요원의 수와 식량의 전달 상황에 대한 감시권한의 확대를 명시한 협약에 합의했다. 그것은 분배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가능범위를 기존의 50개 군(郡)에서 156개 군(WFP 131개, NGO 25개)으로 확대하고, 상주요원의 수는 10명에서 총 75명으로 확대해 기아의 위험이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그 협약은 감시요원의 권한 확대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WFP는 62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60만 톤 이상의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으며, 미국의 NGO컨소시엄은 주로 북서부 2개 도(道)에 거주하는 90만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부표1. WFP의 대북 식량원조협약 비교

	합의물량 (톤)	수혜자 (백만명)	접근지역 (郡)	상주요원 (명)	한국계요원 허용 여부
2005(WFP)	504,000	6.4	158	40	no
2006-08(WFP)	150,000	1.9	50	10	no
2008 물량	730,000	7.1	156	75	yes
- WFP	630,000	6.2	131	59	
- 미국 NGOs	100,000	0.9	25	16	

자료 : CRS,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Sep. 9, 2009.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지원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WFP를 통한 원조는 북미 간 합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로 2008년 11월 중단되었다. 2009년 3월에는 NGO컨소시엄을 통해 이루어지던 식량지원도 중단되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모니터링 보장에 대한 다툼 때문이었다.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미국은 당초 약속 물량의 34%인 16만 9천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을 뿐이다.

자료 3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중국 일각에서는 북한을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안정은 북한과 중국의 공동관심사로서 다른 입장에 우선해 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 정권은 중국 지도층에게 북한 정권의 안정이 곧 북한의 안정이라는 점을 설득하며 중국으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원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원조제공국일 것이라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대북 원조에 대한 정보는 대개 일회적이고 부분적이다. 중국의 대북 원조는 수지균형 보조(swing), 공장과 시설의 건설 지원, 연료 지원, 식량 지원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WFP의 국제식량원조 정보시스템(International Food Aid Information System; INTERFAIS) 데이터베이스에 의 해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원조국 중 하나이다.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 특징적인 점은 모두 북한 정부에 직접 제공되었다는 데 있다.

(CRS,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Sep. 9. 2009.)

부표 2. 중국의 대북 식량지원

	기타곡물	옥수수	옥수수제품	쌀	밀	밀가루	계(톤)
1996	100,000	0	0	0	0	0	100,000
1997	0	110,000	0	40,000	0	0	150,000
1998	0	125,819	0	8,915	10,300	8,317	153,351
1999	0	118,361	0	59,703	5,102	23,937	207,103
2000	0	196,629	0	52,793	0	41,927	291,349
2001	0	300,921	20	74,991	2,522	56,693	435,148
2002	0	140,514	83	88,099	3,944	78,056	310,696
2003	0	32,886	0	115,119	30	66,389	214,424
2004	0	17,539	12,063	36,285	0	92,835	158,722
2005	0	176,088	126	47,614	11,165	296,423	531,416
2006	0	43,833	0	26,283	0	187,875	257,991
2007	0	53,688	0	80,739	0	177,804	312,231
	100,000	1,316,278	12,292	630,541	33,063	1,030,256	3,122,431

주: 곡물환산치 자료

자료: WFP, Interfais 자료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2

2012년 특별기획

지자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실태

경기도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경기도의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과제

최 용 환¹⁾

1. 서 론

남북관계 경색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2012년 현재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는 사실상 중단 상태이다. 대립과 강압 국면 속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북한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권력교체와 동북아 국가들의 주요선거가 예정된 2012년이 되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대북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이슈전환(game change)이 필요하다는 주장²⁾도 대두되고 있다. 즉, 인권과 민생 등 북한 정부의 민감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슈를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언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북 접근법이 변화한다면 어떤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것은 과거의 경험과 북한의 현실, 미래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한 중요한 행위자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이다. 1999년 제주도의 감귤지원사업 추진 이후 기초와 광역을 포함한 다수의 지자체들이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지자체들의 남북교류는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되었으나,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된 대표적인 사업은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이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가 농업협력사업에 집중된 것은 북한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자체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05년과 2006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연거푸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1)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yonghwan@gri.kr

2) 『서울신문』, 2012. 4. 18. “대북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

설정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현재에도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향후 남북교류가 재개된다면 농업협력 사업은 주요한 협력 아이템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자체의 남북교류 경험 가운데 농업분야의 교류, 특히 가장 대표적인 농업협력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가. 지자체 남북교류의 특징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민간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즉,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재원과 역량이 제한적이고, 민간에 비해서는 자율성이 부족하다. 반면에 민간에 비해서는 재정과 능력이 여유가 있어 중장기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중앙정부보다는 정치적 변수로부터 자유로운 특징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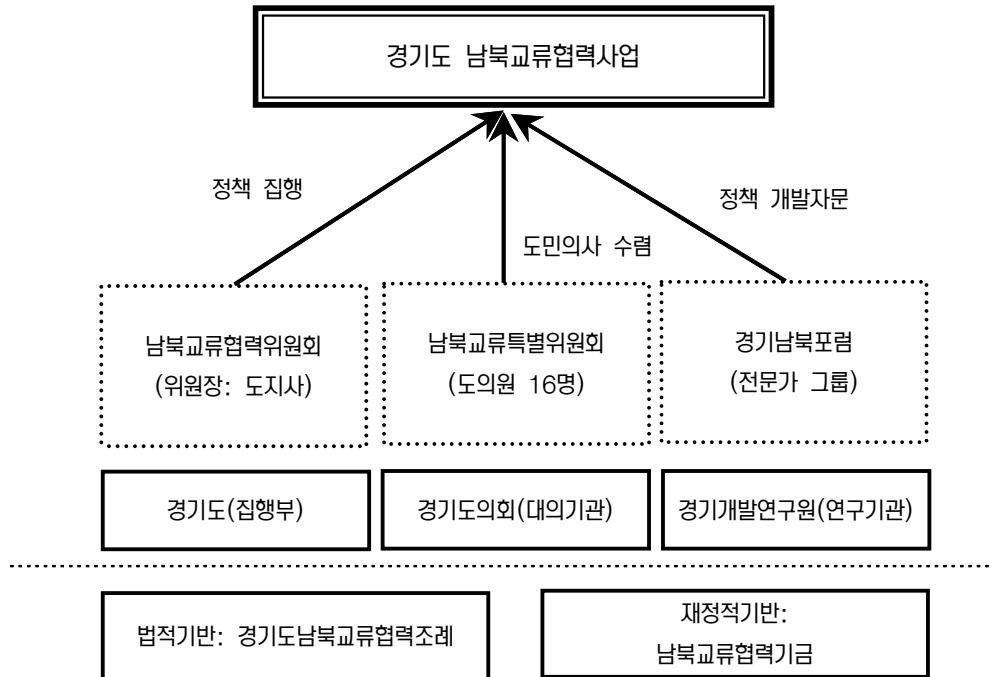
또한 공조직의 특성상 법·제도적 근거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근거가 마련된다면 상당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

1995년 지방자치가 재도입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남북협력사업에 관심을 보였으나,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의 역사 자체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체계 및 기반 구축

경기도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2001년 11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에 기반하여 2002년 3월 4일 도내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도의회에는 ‘남북교류특별위원회³⁾’가 구성되었다. 또한 2002년 12월 경기도 정책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정책개발 및 자문을 위한 ‘남북포럼’을 구성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27억원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였다.

3) 경기도 의회에서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기획위원회’이며, ‘남북교류특별위원회’는 남북교류와 관련된 의제만을 다루는 비상임위원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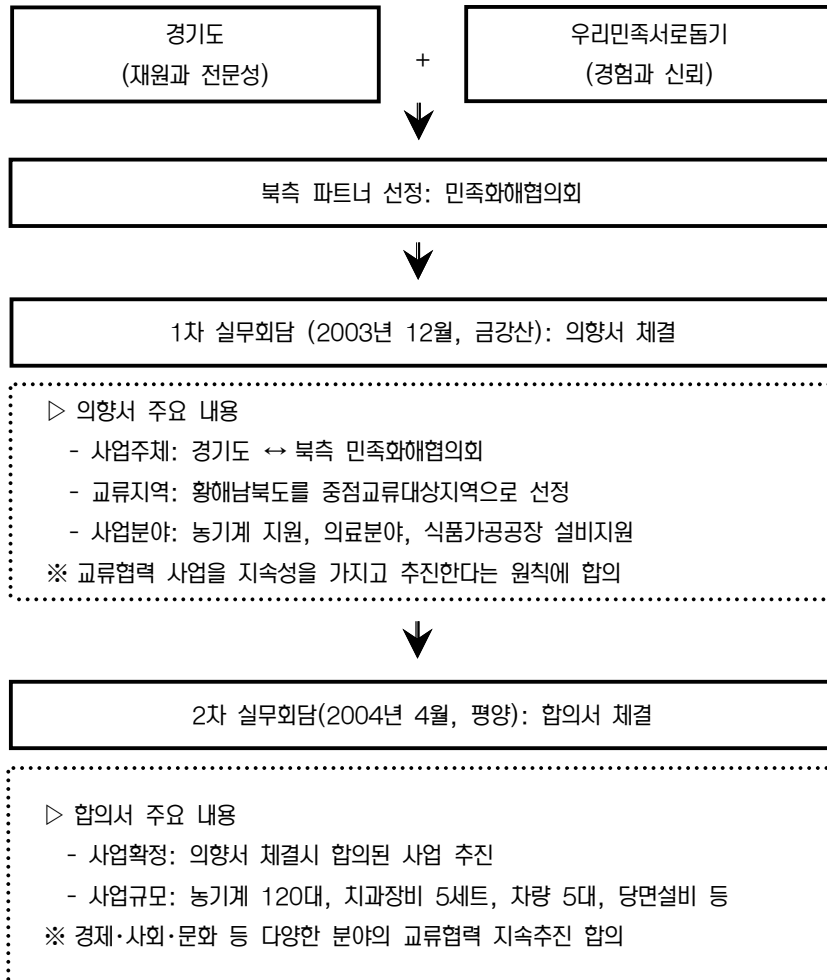
그림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체계⁴⁾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는 남북교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실질적인 교류의 경험도 부족하였다. 또한 북측 역시 한국의 지자체를 민간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대북사업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우리민족서로돕기)를 통해 대북접촉을 시도하였다.

2003년 12월 금강산에서 경기도와 북측의 1차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동 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의향서에서 남북은 사업의 주체를 경기도와 민족화해협의회로 하고, 황해도 지역을 집중교류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농기계지원, 의료분야, 식품가공공장 설비지원 등을 주요 사업분야로 선정하였다. 동 합의는 2004년 2차 실무회담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4)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남북교류 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2006), p. 7.

그림 2. 초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⁵⁾



남북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는 강원도에 이어 국내 광역자치체로서는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다. 사업 초기인 2002년에는 정책기획 부서에 단 1명의 남북교류협력 담당자만을 두었다. 하지만 2006년 북한 협동농장과의 농업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서 4명이 소속한 계 단위로 확대되었고, 2008년 3월에는 12명이 소속된 과로 발전하였다.

5)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남북교류 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p. 10.

다. 경기도 농업협력사업의 추진 경과

경기도가 본격적인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경기도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남북농업협력을 위한 기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었다.

즉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요녕성 수도연구소와 경기도 최북단 지역인 연천, 파주에서 북한의 유망 품종 수량 특성 검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위성데이터 등을 이용해 북측 서부 평야 지대를 대상으로 남측 벼 재배시 쌀의 수량 향상 가능성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⁶⁾

2005년 북한은 신년사에서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선언하였고, 경기도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벼농사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농업분야의 사업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벼농사 시범영농 및 지자체 지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 경기도는 평양소재 농업과학원 근처 3정보에서 남측과 북측의 벼를 심고 남북의 농법을 모두 시험해보는 시범영농을 실시하였다.

<2005년 벼농사 시범영농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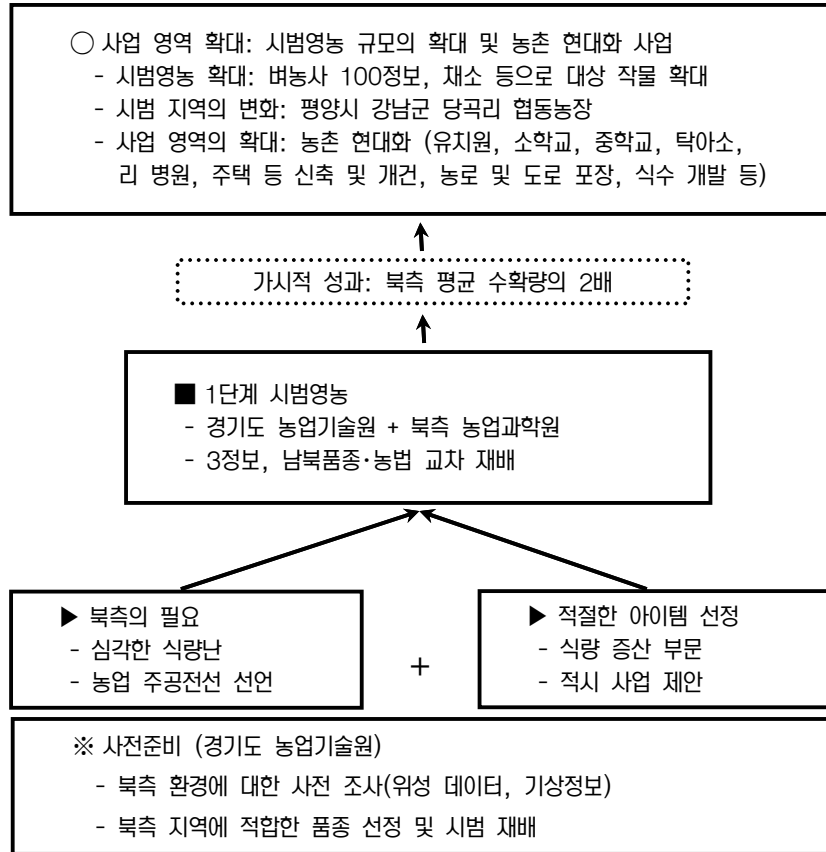
- 사업규모: 3ha
- 사업장소: 평양시 룡성구역 농업과학원 벼 연구소 포장
- 사업기간: 2005년 3월 - 10월
- 주요내용: 남·북측 재배법에 따른 품종 적응성 비교
- 시험품종: 4품종(남측 품종: 오대벼·화동벼, 북측 품종: 양덕 1호·올벼 20호)

자료: 경기도농업기술원, 『남북농업협력사업 성과보고서』(2008), p. 6.

2005년 벼농사 시범영농에서는 1ha당 4.94톤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2005년 초반 남북협의 단계에서 파종시기를 놓쳐 예상 수확량 감소 우려가 있었으나, 북측 평균 생산량(1ha 당 2.7톤, 2003년. 농촌경제연구원)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6) 경기도농업기술원, 『남북농업협력사업 성과보고서』(2008), pp. 37-40. 관련 논문은 박중수 외, “북한 중국 벼 품종의 질소시비 반응에 따른 생육 및 수량,”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제11권 제4호 (1999), pp.363-371; 박중수 외, “육성지가 다른 몇 가지 벼 품종의 재식밀도 반응,” 『경기농업연구』 제10호 (2000), pp. 25-32; 김영호 외, “공간정보와 생육모의에 의한 남한 벼 품종의 북한 서부지대 적응성 예측,”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제4권 제4호 (2002), pp.224-236 등 참조.

그림 3. 경기도 벼농사 시범영농 추진 체계 및 결과⁷⁾



2005년 시범영농 사업을 마치고, 사업의 확대에 앞서 경기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⁸⁾하였다. 이러한 조사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지만 지자체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들은 시범영농 사업에 대하여 대체로 바람직하다(바람직하다 80.3%, 바람직하지 않다 16.9%)는 평가를 내렸다.

7)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남북교류 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p. 12.

8) 2006년 3월 경기개발연구원은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경기도 거주 19세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의 목적은 ‘남북문제 관련 경기도민 의식조사’였으며, 2006년 3월 16 -17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19\%$ 이다.

표 1. 경기도 벼농사 시범영농에 대한 경기도민의 평가

구분	매우 바람직하다	대체로 바람직하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비율(%)	26.9	53.4	14.2	2.7	2.8

2005년 벼농사 시범영농에 대한 평가는 남북 모두에서 긍정적이었으며, 그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의 중장기적 농업협력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경기도와 북측은 2006년 2-4월 기간 동안 3차의 협의와 ‘벼농사 관련 남북 전문가 토론회(2006년 3월)’를 개최하였다. 당초 경기도는 10ha 규모의 농업협력 사업의 계획하였으나, 북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해 사업 규모를 100ha로 확대하였고, 사업 대상지는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로 선정하였다.

<강남군 당곡리 기본현황>

- 면적: 700ha (210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
- 농경지: 600ha(논 400ha, 밭 200ha), 전체 면적의 86%
- 세대수/인구수: 750세대/ 4,000여명
- 위치: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부근, 개성방향 고속도로변에 인접

100ha의 재배 방식은 남측 품종(오대벼) 50ha, 북측 품종(평도 15호) 50ha로 하고, 남측 품종 오대벼는 남측 재배법, 북측 품종 평도 15호는 북측 재배법으로 재배하였다. 이외에 남측 품종 3종(오대벼, 상미벼, 수라벼), 북측 품종 3종(평도 15호, 서해찰 2호, 평양 45호) 등 6품종을 공시, 수량검정포 3개소를 운영하였다.⁹⁾

2006년부터는 벼농사 협력사업 이외에 채소농사 협력사업을 병행 실시하였다. 재배 작목은 토마토, 오이, 수박, 호박 (동계: 파, 마늘) 등이었으며, 벼 육묘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였다. 채소재배는 북한 협동농장에서 잉여물을 시장에 판매하여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이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즉, 채소재배는 당곡리 협동농장원들에게는 신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¹⁰⁾

농업협력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벼농사 및 채소재배 관련 기술자들의 방북이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사업 준비 시기인 3월부터 추수기까지는 경기도 인원들의 방북이 매달 이루어졌다.

9)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남북농업협력사업 성과분석』(2007), p. 47.

10) 경기도농업기술원, 『남북농업협력사업 성과보고서』, p. 14.

표 2. 2006년 사업추진을 위한 시기별 방북내용

방북시기	인원	주요 수행내용
3. 4~7	6	남북 벼농사 전문가 토론회,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 등
3. 22~4. 5	2	비닐하우스 벼 육묘장 설치 등
4. 19~5. 4	5	벼 종자소독, 파종 및 육묘관리 등
5. 1~13	2	벼 육묘관리 및 기비시용 등
5. 10~20	3	벼 육묘관리 및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 등
5. 17~6. 4	7	벼 기계이앙 지도 및 농기계 정비 등
6. 10~6. 17	4	벼 생육관리, 제초제 사용지도, 채소정식 및 재배관리
7. 5~13	5	벼 유수형성기 생육관리, 이삭거름 시용, 병충해방제, 채소 생육관리, 농기계 수리·정비기술 지도 등
8. 23~26	2	벼 출수조사, 채소 재배관리, 대파 파종 등
9. 23~30	5	벼, 채소 수량조사, 벼 수확 및 농기계 사용교육 등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육묘장 설치 지원, 이앙기·경운기·콤바인·트럭 등 지원, 농로 및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및 공사용 장비 지원, 도정공장 및 창고 신축,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 농업용 지하수 개발 등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곡리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주택보수, 소학교 및 유치원 보수 자재 지원, 진료 및 탁아소 신축, 의약품 지원 등의 사업도 병행하였다.

2007년부터는 벼농사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200ha로 확대하였으며, 기타 채소 재배 및 마을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경기도의 남북농업협력사업은 협의 초기부터 3개년 사업으로 입안되어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인 추진을 염두에 두고 남북간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동 기간 동안에 북한의 핵실험과 경기도 지자체장의 교체 등 정치적 변수가 있었으나, 기 합의한 사안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하여 중단 없이 추진되었다.

표 3. 경기도 농업협력사업 내용

연도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추진 방향		벼농사 및 환경개선 집중투자	벼농사 및 환경개선 사업 확대	남북협력 신농촌 모델 완성
농업 협력 분야	벼농사	벼농사 100ha *ha당 쌀 5.12톤 생산 (북한평균 약 2.75톤) 농기계/비료 등 지원	벼농사 200ha 농기계/비료 등 지원	벼농사 200ha 농기계/비료 등 지원
	농업 기반 조성	농로 및 진입로 포장 중장비지원 관정 1공 도정공장 및 창고신축 자재 채소재배 농기계지원(이앙기 등)	채소재배 도정공사 등 마무리 유치원 보수, 탁아소 신축 농기계 정비기술 지원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	주택신축 식수용 관정개발 의약품 지원
기타		주택개보수 59세대, 소학교 등 보 수자재 지원, 의약품 지원(60여종)	진료소 신축, 의약품 지원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 방안 연구』(2009), p. 35.

민선 4기에 들어서는 농업협력사업 이외에도 산림녹화를 위한 양묘장 조성사업,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에 발생하는 말라리아를 막기 위한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2007년 9월에는 개성시 개풍동 일대에 9ha 규모의 양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500만 ha 이상의 지역에 조림이 가능한 150만 본의 묘목 생산을 목표로 하였다. 동 사업은 북측의 산림 황폐화를 막는다는 명분과 함께, 경기도에서 육로로 접근이 가능한 북측 접경지역에서의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북측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 사업은 남측에서는 과주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북측에서는 개성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6월에서 9월까지 집중 방역 기간을 설정하여 공동방역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방역차량 및 살충제 등 방역물품을 북측에 지원하였고, 환자 발생 현황과 매개모기 밀도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¹¹⁾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의 경우, 2010년 소위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11)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2009), pp. 88-89.

지속성을 이어간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다.

2009년부터는 축산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양돈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2012년부터 축산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남북교류와 무관하게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CDM(Clean Development Measure) 등과 연결시킴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북측 간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그리고 이에 뒤이은 2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이 심화되면서 현재는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면서 경기도의 남북교류 역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3. 경기도 남북 농업협력사업 평가

경기도의 농업협력 사례는 농업분야의 지원사업과 함께 종합적인 농촌개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많은 경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그렇지만 인도지원의 성격도 있었다.

벼농사 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북한 평균 수확고의 두 배에 이르는 수확량 증대를 가져왔으며, 북측 지역에서 재배한 쌀의 일부를 경기도에 들여오기도 하였다. 물론 단순한 수확량 증대가 농업협력사업의 성과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농업협력사업의 성과로 수확량 증대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남측으로부터의 비료와 농자재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증대된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농업협력사업 자체가 북측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북한의 협력 단위 자체의 자생력 증대라는 측면에 대한 본질적 관심이 필요하다.

북측 협력단위의 자생력 증대와 관련해서는 채소 등 환금성 작물 재배에서 일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토마토, 오이, 수박, 호박 등은 북한의 장마당에서 판매가 가능하였으며, 정확한 판매량을 추산할 수는 없었으나 북측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북측 협력단위들이 생산된 잉여를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경기도 농업협력사업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1년 단위의 단기 사업이 아닌 3년 단위의 중기사업이라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2005년 시범영농을 통해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중기 사업을 계획하였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차기년도 사업에 대해 북측과 끊임없이 협의할 수밖에 없었으며, 3년 단위나마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예컨대 2006년 말에는 남북의 담당자들이 중국의 심양 및 단둥에서 만나 중국을 통해 지원되는 자재의 구입 및 운반경로를 공동조사하고 협의하였다.¹²⁾ 또한 새롭게 지원되는 농기계 등의 사용법 등과 관련된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남북이 함께 차기년도 사업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 농업협력사업은 농업분야와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이었다. 특정 지역(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에 사업을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교류의 계기로도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수십명의 기술진이 방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 경기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현재는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 사업 관계자들과 기술진의 경우에는 수없이 사업 대상지역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¹³⁾ 이렇게 축적된 남북간 신뢰와 협력의 경험은 이후 사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외에 농업기술적 측면에서 남측 농법의 북측 적용 가능성이나 재배 품종의 적응력 등에 대한 확인 등 농업기술적 차원의 성과¹⁴⁾를 확인한 것 등도 향후 농업협력

12) 경기도농업기술원, 『남북농업협력사업 성과보고서』, p. 220.

13) 이 당시 방북했던 기술진의 의견과 경험담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평양 당곡리에 심은 경기도의 한마음』 (2008) 참조.

14) 농업 기술적 측면에서의 주요 성과를 들자면 다음과 같음. (경기개발연구원, 『남북농업협력사업 성과분석』, pp. 82-83 내용을 참조하여 재정리)

- ① 우리 벼 품종에 대한 북한지역 적응성 검증이 이루어져 북한 서부평야지(평안남도 이남 전지역)에 오대벼, 운광벼, 상미벼 등 남측 유망품종의 확대 재배 가능
- ② 북한 서부평야지에서 농약, 비료가 적절히 투입될 경우 초밀식 재배(120주/평)보다 남측 기계이앙재배(90주/평)가 생력적이고 종자절약이 가능하며, 적정 수량을 낼 수 있는 재배법임을 확인
- ③ 남측의 기계이앙 벼 육묘기술이 북한의 냉상비닐박막못자리(육묘일수 50~55일)에 비해 묘상면적이 적고 육묘관리기간이 30~35일로 짧은 집약적 육묘방법임을 입증
- ④ 비료 등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냉상비닐박막못자리에서 육묘한 묘 이용 재배시 북한의 기비-분얼초기-분얼중기-이삭거름-알거름의 5회 분시 재배 대비 남측의 육묘, 이앙법 적용과 기비-분얼기-이삭거름의 3회

사업 추진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협력사업 자체는 비정치적 분야의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바라보는 북측의 태도, 남북관계, 여론의 흐름 등 다양한 외부변수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남북교류 자체의 한계도 존재하였다. 2008년 이후 농업협력사업이 중단된 것도 동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악화된 남북관계와 북측의 일방적인 사업중단 요구에 기인하였다.

또한 사업 대상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북측의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작용하였다. 경기도와 북측은 당초 경기도와 접경하고 있는 황해도 지역을 집중 교류대상 지역으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에서의 협력사업을 주장하였다. 당시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당곡리와 인접한 장교리에서 농업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농업협력사업의 주 대상지는 평양 근교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남측 협력주체들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는 발견된다. 즉, 남측 지자체들 간, 혹은 지자체와 NGO들 간의 정보교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북측이 남측 단체들 간의 경쟁관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었다.

이외에 지자체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잦은 인력교체가 이루어지는 점,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였다.

분식체계 전수로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시비기술 보급

- ⑤ 남측 농기계 지원으로 기존의 북한 협동농장 영농체제가 우마차+천리마 트랙터+주체농법 이앙기 체계에서 경운기, 트랙터+이앙기+동력분무기+콤바인 보급으로 작업단계별 정밀 초생력화 작업(이앙, 병충해방제, 수확+탈곡+대량정선+뺏짚절단)이 가능
- ⑥ 육묘전용 비닐하우스를 설치, 벼 육묘 후 시설채소 재배기술을 전수하여 토마토, 오이 등 경제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협동농장 자체 수익사업 창출 가능
- ⑦ 벼농사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내 소형터널 설치로 가온하지 않고 육묘할 수 있는 보온육묘기술, 채소전용 상토와 못자리 상토이용 채소전용 플러그트레이 이용 육묘법 등 발달된 남측의 채소 육묘기술을 전수
- ⑧ 개화 후 작과를 위한 작과제 사용기술, 호박 인공수정기술 등 수량성 향상과 품질이 높은 과채류 생산을 위한 주요 생육시기별 재배관리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채소작물 재배가 당곡리 협동농장의 부식재료 생산, 공급은 물론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능
- ⑨ 북측에서는 기존에 재배하지 못했던 새로운 작목인 방울토마토와 수량성이 높은 오이, 호박품종 등의 소개를 통해 남측 채소품종과 작목에 대한 관심 고조
- ⑩ 남측의 벼 기계이앙, 시설재배 원예 하우스 설치 및 시설채소 재배 등 선진농업기술 전수를 통해 남측의 각종 농기계, 농약, 비닐하우스 육묘상자 등 농자재 산업의 활성화 가능성 확인

4. 결론 : 향후 과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다양한 남북교류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농업분야는 북한의 현실적인 필요와 기존 협력사업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활성화될 여지가 가장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된다면 단순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발전된 차원의 교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경험에 기초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남북교류의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로이지만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한 품종 및 재배지의 선택 등과 관련된 기술적 준비는 물론이고, 충분한 재원과 제도적 기반의 마련 역시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와 같은 공조직의 경우 인력과 제도, 그리고 재정이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농업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벼농사가 대표적이지만 농업 분야는 대부분 파종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북측과의 협상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 등 특정 분야 실무자들의 경우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되는 자재와 장비들이 사업대상지에서만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의 수량 산정 등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측의 열악한 전력사정, 북측 인력의 숙련도, 도로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의 수행 방식 및 비전과 관계된 것이다. 즉,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신뢰와 동질감 회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관계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즉, 남북 간에 사업 시행 전에 미리 만나서 협의하고,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특정 시기에 일회성 관심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협의해서 다음 시기의 협력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NGO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주체가 보다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더 많은 지역에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3

북한농업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국내매체 보도 동향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과학농사를 실시하자 (로동신문 2.4)
 - 강원도에서 과학농사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있음.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 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농업전선을 경공업부문과 함께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에 따라 당의 농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있어 기본은 농사의 과학화임.
 - 강원도 창도군 읍협동농장에서는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해 경지면적에 후민산소다를 받아들임. 우선 토지를 개량하여 땅의 지력을 높일수 있었으며 농작물의 뿌리발육에도 좋았으며, 원료 걱정도 없었음.
 - 또한 지난해부터 흙보산비료를 비롯하여 유기농법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도당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
-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자(로동신문 2.29)
 - 봄철영농이 다가옴에 따라 농업부문 일꾼, 근로자들은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물은 농업의 생명수임. 농작물에 물을 넉넉히 보장하는 것은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요구임.
 - 일꾼들은 현지에 내려가 시, 군, 농장별 물잡이 형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물량을 빠르게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함. 모든 농장에서는 저수지, 보조수원에 물을 채워넣기 위한 사업을 완수해야 함.
 - 새로운 물원천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하며, 저수지에 물을 빨리 채워넣어야 함. 각지 관개관리소 일꾼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양수설비의 수리정비를 빨리 끝내야 함.
 - 확보한 물을 낭비없이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저수지수문과 제방,

물길 보수를 튼튼히 해야 하며, 물확보와 공급을 계획적으로 할수 있도록 급수체계를 바로세워야 함.

○ 선진영농기술과 방법 적극 받아들여 (로동신문 4.14)

- 지난해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종합분석실을 거점으로 농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토양기후조건에 맞는 다수확품종을 배치하였으며 논밭의 지력을 높이는데 모든 힘을 집중함.
- 과학적인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토지를 개량하고 지력을 높일 목표 하에 사리원시 안의 진거름과 닭공장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실어들이고 작업반에 구체적인 퇴비생산과제를 주어 정보당 40톤 이상의 질 좋은 유기질거름 등을 생산하여 논밭에 낸.
- 또한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따르는 과학적인 시비체계와 병해충예방구제대책을 세워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높은 소출을 거둬.
- 올해에는 지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정보당 40톤 이상의 자급비료를 내고 아미노산미량복합비료를 자체로 생산하여 시비하며 식물성장조절제와 생물농약을 적극 도입할 것임.
- 또한 과학적인 영농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우리식의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 알곡 수확고를 훨씬 높일 것임.

2. 벼농사

□ 농사차비

○ 농사차비에 힘을 기울여 (로동신문 2.9)

- 은파군 류정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농장에서는 농사차비의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노동력을 조직하여 짧은 기간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한편 모든 작업반, 분조에서 그날 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제8작업반원들이 모판자재를 비롯한 영농자재확보에서 앞서나가고 있으며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제2작업반의 분조들과 농장

원세대에서는 많은 기름을 생산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소석회를 생산하고 있음.

□ 씨뿌리기

○ 씨뿌리기 준비를 빈틈없이 (로동신문 3.15)

- 숙천군 운정농장에서 씨뿌리기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기사장을 비롯하여 작업반에 내려간 일꾼들은 씨뿌리기에 필요한 소농기구와 바람막이바자(방풍원), 부식토 등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씨뿌리기 일정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벼랭상모판준비에 힘을 집중하고 있음. 일꾼들이 현장에 나가 모판만들기, 종자처리장보수, 물확보 등을 제때에 끝내도록 노력하고 있음.
- 씨뿌리기 준비에서는 제7작업반이 앞장서고 있음. 이곳 작업반원들은 바람막이 비닐과 활창대를 비롯하여 씨뿌리기 준비에 필요한 자재를 짧은 기간에 마련해 놓았음.

○ 벼랭상모판씨뿌리기 한창 (로동신문 3.28)

- 황해남도의 농촌에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가 한창임.
- 황해남도에서는 도 일꾼들이 씨뿌리기와 관련한 영농사업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청단군 청정협동농장에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시와, 군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뿌리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씨뿌리기 준비를 빈틈없이 해온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비롯한 영도업적단위가 씨뿌리기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 송화, 삼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의 농업근로자들도 논벼종자의 싹틔우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면서 자체로 모판만들기를 앞세우고 씨앗을 정성껏 뿌리고 있음.

3. 발농사

□ 씨뿌리기

○ 봄밀, 보리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로동신문 2.25)

- 봄밀, 보리 씨뿌리기가 시작됨. 씨뿌리기는 적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함. 봄밀,

보리는 자라는 기간이 짧으며 낮은 온도에서도 싹이 트고 자람. 그러므로 씨 뿌리는 시기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면 수확고를 높일 수 있음.

- 봄밀, 보리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해야 함. 논앞그루로 봄밀, 보리를 심는 농장에서는 발작물의 특성에 맞게 두둑을 지어주고 물도랑도 깊이 만들어 냉해와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단벌농사에 비하여 두벌농사에서는 지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특히 봄밀, 보리는 자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밑비료를 충분히 주어 초기부터 영양상태를 좋게 해주어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음.
- 봄밀, 보리는 아지치는 기간이 짧으므로 평당 씨뿌림양을 가을밀, 보리보다 늘려야 하며 씨앗묻는 깊이를 정확히 지켜야 함.

□ 강냉이

- 영농기술과 방법을 실정에 맞게 (로동신문 3.21)
 - 지난 기간 대관군에서는 해마다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를 5월 초에 했는데 그때마다 가뭄이 시작되어 초기생육이 적지않은 지장을 받았음.
 - 가뭄에도 견디고 낮은 기온에서도 안전하게 강냉이농사를 짓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진거름과 부식토, 린회토 등을 이용한 영양단지를 만들어 강냉이농사를 하면 산간지대에서도 알곡수확고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 군에서는 이 경험을 모든 농장에서 적극 본받도록 하였음. 그에 따라 모든 농장에서는 이처럼 질 좋은 영양단지를 만들어 모를 싣하게 키워냄으로써 지난해 강냉이 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거둠.

4. 감자농사

□ 감자농사 정책

- 감자위주의 두벌농사 (로동신문 3.18)
 - 감자종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감자종자 싹틔우기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감자종자를 싹틔워 심으면 싹이 7일 정도 더 빨리 자라고 초기 생육이 왕성해지므로 알달리는 시기와 여무는 기간을 10~15일 정도 앞당겨 정보당 수확고를 20% 정도 높일 수 있음.

- 감자종자 랭상처리도 기술적으로 해야 함. 랭상처리를 잘하여 튼튼한 모를 옮겨심으면 감자가 초기부터 잘 자라고 생육기일을 1주일 이상 앞당겨 수확고를 18% 정도 높일 수 있음.
- 감자위주의 두벌농사로 방향이 전환되어 앞그루 감자농사면적이 늘어난데 맞게 이른봄밀식모판재배에 의한 감자종자생산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전국의 농촌에서 감자종자저장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감자종자저장고 건설이 끝나면 감자위주의 두벌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임.

□ 두벌농사

- 두벌농사준비를 실속있게 (로동신문 3.1)
 - 장강군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군의 농업부문 일꾼, 근로자들은 지난해보다 두벌농사면적을 늘린데 맞게 농사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음.
 - 읍협동농장, 장평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두벌농사포전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협동농장에서는 니탄과 질 좋은 거름원천을 찾아내어 두벌농사포전에 실어나르고 있음.
 - 일꾼들은 종포지구에 석회석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수송조직을 배치하여 생산한 석회석을 신성, 성장, 원평 등 여러 협동농장에 보내주고 있음.
 - 협동농장에서는 태양열 온실을 이용하여 북부고산지대의 기후적 특성에 맞게 앞그루작물인 감자모키우기를 위한 준비를 실시하고 있음.

5. 축 산

□ 축산동향

- 집약화가 실현된 축산토대 (로동신문 2.25)
 - 현대적인 돼지공장에서 과학적인 육종체계를 세우고 사양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축산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 사리원 돼지공장에서는 사양관리조건에 맞고 새끼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종자를 육종함.
 - 또한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산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육성률은 물론 마리당 고기생산량을 종전보다 1.2배 이상 높임.

- 현대적인 가금기지에서도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고기, 알생산을 높임. 신의주 닭공장에서는 자체로 우량품종의 닭을 육종하였으며, 927닭공장에서는 먹이조절에 의한 비육닭기르기 방법을 완성하여 고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
- 홍주닭공장에서 (로동신문 3.14)
 - 홍주닭공장에서는 올해 1/4분기 닭알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닭고기와 닭알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배합먹이생산공정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종금직장에서 사양관리를 닭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비육직장의 매 호동의 먹이주기, 온습도 보장설비에 첨단과학기술성과를 받아들임.
 - 매주 닭의 증체율을 알아보고 그에 맞게 사양관리를 기술적으로 하도록 지도사업을 실시하여 닭고기 생산을 늘리고 있음.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에 비해 닭알, 닭고기 생산을 1.2배 높이는 성과를 거둠.
- 새로운 발효먹이생산방법 도입 (로동신문 3.20)
 - 하당닭공장에서는 토착미생물에 의한 새로운 발효먹이생산방법을 도입하여 30%의 배합먹이를 절약하면서도 닭알생산을 정상화하였음.
 - 하당닭공장에서는 토착미생물이 가금의 먹이원천으로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토착미생물에 의한 진흙먹이를 생산해내는데 성공함. 진흙먹이는 닭의 몸안에 들어가면 병을 예방하고 소화흡수율을 높여 증체와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함.
 - 이 과정에서 토착미생물이 생산성이 높음을 발견하고, 종균을 생산하여 먹이생산을 늘림.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더 많은 닭알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6. 농업기반

☐ 토지정리, 간석지, 국토관리 사업

- 3만여 정보의 냉습지 개량 (로동신문 2.7)
 - 농업성 자료에 의하면 새해농사차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만여 정보의 냉습지가 개량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7배나 높은 실적임.
 - 황해남도 일꾼들은 지난해 기상기후조건과 농사실태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올

해에 1만 3천여 정보의 냉습지를 개량할 목표를 세움.

- 안악군 안의 농장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게 땅속 물도랑을 만들 곳은 만들고 차단물도랑을 팔데는 파면서 냉습지개량 사업을 힘있게 추진함. 그리하여 천수백 정보의 냉습지를 개량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함경남도에서도 냉습지 개량에 힘을 넣어 성과를 올리고 있음. 리원군과 신포시에서는 올해 냉습지개량계획을 이미 수행하였으며 함주군과 함흥시에서도 냉습지개량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 올해에도 도적으로 3천여 정보의 냉습지를 개량함.
 - 남포시에서는 올해 계획한 냉습지 개량을 이미 기본적으로 끝냈으며 함경북도, 강원도 안의 농촌에서도 냉습지개량실적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더욱 높이었음.
-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 및 대계도 간석지 마감단계 (로동신문 3.14)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연합기업소에서 광산간석지 2단계 건설과 대계도간석지 내부망공사를 빠르게 추진하여 총공사량의 90% 이상을 수행하였음.
 - 연합기업소에서는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공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관도지구에서는 공사를 최단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해 제방의 안쪽과 바깥쪽 돌입하기를 비롯한 마감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로하간석지 건설사업소에서는 배수문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대계도간석지 내부망공사를 맡은 연합기업소에서는 돌입하기공사와 배수문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장에서 10만산(m³) 대발파 진행 (로동신문 3.18)
-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장에서 15일 10만산(m³)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
 - 평안북도간석지건설 연합기업소에서는 간석지제방공사에 필요한 돌과 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발파준비를 하고 있음.
 -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의 청년건설자들은 하루 수십m씩 굴진을 하여 발파준비를 앞당기는데 기여함.
 - 10만산(m³)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일꾼, 건설자들은 6호, 7호 제방공사를

앞당겨 완공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음.

-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과 대계도간석지 내부망공사 완공 (로동신문 4.8)
 -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의 일꾼, 노동자들이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과 대계도간석지 내부망건설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함.
 - 지난 해에 이곳 간석지건설자들은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공사량의 많은 몫을 해내는 성과를 거둠.
 - 또한 일꾼들은 광산간석지 2단계건설과 대계도간석지 내부망건설을 동시에 진행하는 조건에 맞게 계획을 추진함.
 - 관도지구에서는 다사기계화사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광산간석지건설사업소에서 6만산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짧은 기간에 완공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짐.
 - 대계도간석지 내부망건설공사를 맡은 연합기업소의 일꾼들은 막돌운반을 앞당겨 끝낸 성과에 기초하여 장식쌓기와 배수문건설을 추진하여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연 1만여 km의 자연흐름식물길 완성 (로동신문 3.2)
 - 2002년 10월 개천-태성호 물길이 처음으로 자연흐름식관개체계 본보기로 건설된 때로부터 지난 10여년 간 연 1만여 km의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됨.
 - 자료에 의하면 대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되어 이 지역들에서 1,000여대의 양수기, 전동기가 없어져 12만 여 kW의 전기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음.
 - 중소규모 자연흐름식물길은 평원군, 숙천군, 대동군, 개천시, 증산군을 비롯한 평안남도의 시, 군과 남포시 안의 군, 구역 등 도처에 건설되었음. 정주시와 룡청군, 염주군, 동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에서도 중소규모물길공사를 벌려 많은 면적의 농지에서 안전한 수확을 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함.
 - 황해북도에서 30여 개 대상의 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해냈으며, 개성시에서도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실시해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넉넉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함. 함경남도에서도 근 100km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하여 수천정보의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보장할 수 있게 함.

7. 산림

☐ 통나무 생산

-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 수행 (로동신문 3.1)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한달 남짓한 기간에 임업성 산하 20여개 작업소에서 연간 산지통나무 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함.
 - 임업성에서는 올해 들어와 통나무 생산 증대를 위하여 능력있는 일꾼들을 각지 임산, 갭목생산사업소에 내려보내 그들이 생산조직을 지휘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함.
 - 함경남도 임업관리국에서는 일꾼들이 노동자에게 겨울철 통나무 생산이 갖는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나무베기, 사이나르기 등 공정별 작업에 앞장서서 대증을 이끔.
 - 자강도 임업관리국에서도 올해 산지통나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목표를 세웠으며, 룡림임산사업소의 일꾼, 노동자들은 채벌장에서 증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나무심기

- 봄철 나무심기에 역량을 집중 (로동신문 3.12)
 - 각지 당조직, 근로자단체조직의 일꾼들은 봄철나무심기에 당원, 근로자, 청년학생을 비롯한 인민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
 - 푸른숲은 양묘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한 구성시, 고산군, 회양군, 정평군, 리원군, 벽성군, 은률군, 전천군을 비롯한 각지 시, 군당조직의 책임일꾼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모생산을 확고히 앞세우도록 하여 봄철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함.
 - 형제산구역, 사동구역, 서성구역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당조직에서는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필요한 나무모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봄철나무심기 기간에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에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게 준비함.
-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로동신문 3.16)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수도 거리에 수종이 좋은 10만 수천 그루의 나무

심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성과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

-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특색있게 설계된 평양시원림록화 형성안에 따라 봄철에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이 사업에 수도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나무심기가 시작된지 며칠만에 서성구역과 모란봉구역에서는 도시원림록화계획에 따라 중요거리의 나무심기를 빠르게 해내는 성과를 거둠.
- 시에서는 나무심기를 계속 해나가는 한편 이미 심은 나무를 정성껏 가꾸는 사업에 시민들을 불러일으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조국산천에 푸른 숲 우거지게 (로동신문 3.19)

- 황해남도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산림부문 일꾼들이 올해 산림조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식수절을 계기로 옥계천, 광석천지구에서 일꾼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었으며, 벽성군 산림경영소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해내고 있음.
- 재령, 은률, 신원군에서도 앞선 나무모생산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생산함.

□ 나무모 생산

○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할 목표 (로동신문 2.12)

- 국토환경보호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양묘장에서 올해에 지난해보다 수억그루의 나무모를 더 생산할 목표 하에 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
- 중앙양묘장의 양묘직장, 품종보존구직장, 시험재배직장에서는 니탄과 톱밥을 적극 찾아 실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채종구직장, 온실직장의 일꾼, 종업원들도 벼겨를 제때에 실어들이야 질 좋은 영양단지원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운반수단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
- 리원군, 정평군, 함주군, 신흥군, 고원군산림경영소를 비롯한 함경남도 안의 산림경영소 양묘장에서 나무모생산준비를 다그치고 있음.
- 평안북도 시, 군산림경영소에서도 나무모 온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 (로동신문 3.2)
 - 벽성군산림경영소에서 수백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둠.
 - 벽성군산림경영소 일꾼들은 나무를 심을 적지를 확정하는데 기초하여 필요한 나무모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기술일꾼과 함께 해당 단위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함.
 - 이와 더불어 봄철나무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기 위해 작업도구와 포장용기 확보 등 준비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8. 기타 작물

□ 과수

- 가지자르기를 기술적으로 (로동신문 2.5)
 - 온천과수농장에서는 올해 과일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방도의 하나를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는데서 찾았음.
 -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정보당 과일생산을 늘릴 목표를 세운 일꾼들은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과일나무비배관리에서 중요한 공정인 가지자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올해 농장에서는 새로운 가지자르기 방법을 도입하였음.
 - 제3작업반 근로자들 모두가 과일나무 가지자르기에서 지켜야 할 과학기술적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날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제4작업반 근로자들도 과일의 품종별 특성에 맞게 가지휘여주기와 가지숙음을 기술적요구대로 하고 있음.
- 식물성농약생산을 늘린다 (로동신문 2.5)
 - 올해 함경북도 과수연합회사 초평과수농장에서 지난해보다 식물성농약 생산실적을 더 올렸음. 그 비결은 능률 높은 건류로를 새로 만들어 이용하는데 있음.
 - 새로 제작되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이 건류로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3개의 밀폐탱크가 있음. 원료는 마른 강냉이숙, 쭉 등임. 마른 강냉이숙은 그대로 사용하며, 쭉은 10-15cm의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함.
 - 새 건류로는 우선 원료를 적게 쓰면서도 더 많은 식물성농약을 생산할 수 있

음. 종전의 건류로와 대비해볼 때 시간당 생산량이 3배나 됨. 또한 식물성 농약의 질이 높아졌음. 더욱이 과일나무의 성장촉진에 매우 효과적임.

- 각지 과수농장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원료원천을 적극 찾아 내어 효능 높은 식물성농약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과일생산을 늘리는데 이바지 하게 될 것임.

○ 늘어나는 현대적인 청춘과원 (로동신문 2.25)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에만 대동강 과수종합농장과 같은 청춘과원이 곳곳에 세워짐으로써 키낮은사과나무밭 면적이 수천 정보 증가함.
- 함경남도에서는 룡전과수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과수농장에서 토지를 정리하고 키낮은사과나무를 비롯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평안북도에서는 송한과수농장을 본보기단위로 꾸려놓고 그 경험을 다른 과수농장에 일반화하고 있음. 평양시, 황해북도, 황해남도에서도 이미 있던 과수원을 현대화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음.

○ 과일나무 비배관리에서 혁신 (로동신문 2.29)

- 각지 과수농장에서 과일나무비배관리에 힘을 넣고 있음. 연초부터의 노력으로 1/4분기 거름생산 계획이 앞당겨 완수되었으며 과일나무 가지자르기 실적은 계획의 50%를 넘어섰음.
- 온천과수농장을 비롯한 과수농장에서는 과수밭의 지력을 높이는 것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
- 평양시와 평안남도 내 과수농장에서는 가지자르기를 과일나무의 생태학적 특성과 영양상태에 맞게 잘하고 있음.

○ 수십가지의 과일나무 품종 육성 (로동신문 3.19)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사과, 배, 복숭아, 살구, 추리, 포도나무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과일나무 품종이 육성되어 많은 면적의 청춘과원이 조성됨.
- 농업과학원 과수학연구소 과학자들은 과수업에서 생산을 늘리기 위한 핵심사업을 종자혁명으로 여기고 수십가지의 과일나무 품종을 육성함.

- 또한 과학자들은 눈접방법, 초밀식재배방법, 가지자르기방법 등을 연구완성하여 과일나무를 널리 육성할 수 있는 전망을 열었음.
- 세계굴지의 대규모과일생산기지인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꾸러진 나무모생산기지에서는 조직배양에 의한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자체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음.
- 수천 정보의 과수원에 과일나무 심기 시작 (로동신문 3.29)
 - 과일나무심기가 시작되었음. 각지에서는 수천정보의 과수원에 우량 품종의 과일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과수연합총회사와 농업성에서는 올해 봄철에 전국적으로 수천 정보의 과수원에 키낮은사과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를 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송한, 광산과수농장에서는 새로 조성할 과수원에 정보당 100톤 이상의 거름을 실어낸 기세로 과일나무 심기를 빠르게 해내고 있음.
 - 정주시, 녕변군을 비롯한 평안북도 안의 시, 군에서도 우량품종의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심고 있음. 과일나무모 생산기지를 꾸려놓고 배, 복숭아, 살구 등 여러 가지 과일나무모를 많이 키워낸 이곳에서는 정성을 다해 나무를 심고 있음.

□ 남새

- 태양열 온실에서 많은 남새를 (로동신문 2.12)
 - 강계시 농업부문 일꾼과 근로자들이 태양열 온실을 이용하여 많은 남새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험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의 태양열온실에서 많은 남새를 생산하여 광명성절과 태양절에 주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할 목표를 세움.
 - 시험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모든 협동농장에서 수백㎡의 태양열 온실을 새로 더 건설한 조건에 맞게 온실에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책임감이 높은 농장원을 온실관리공으로 배치하고 그들이 온도보장, 물주기, 덧비료주기 등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음.

9. 기타 보도 동향

☐ 비료, 거름

- 유기질비료생산에서 혁신 (로동신문 2.25)
 - 농업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거름생산은 1.1배, 흙보산비료 생산은 1.4배,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은 1.3배로 높아짐.
 - 평양시, 평안북도, 함경남북도, 남포시, 강원도, 자강도, 량강도에서는 거름생산이 끝났으며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에서는 마감단계에 진입함.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만 톤의 질 좋은 거름이 생산됨.
 - 흙보산비료 생산에서도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남. 함경북도에서는 이미 생산이 끝났으며, 평안북도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3.5배나 되는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였음.
 - 유기질복합비료 원료확보와 생산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황해북도에서는 사리원 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을 비롯한 모든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의 생산설비를 보수정비하고 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 많은 흙보산비료를 (로동신문 2.27)
 - 신천군 우룡협동농장 제9작업반에서 흙보산비료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들은 흙보산비료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양과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나가고 있음.
 - 알곡증수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가 흙보산비료생산을 늘리는데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한 농장원들은 기온이 올라가는데 맞게 야외에도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를 꾸렸음. 이들은 온습도보장대책을 잘 세워 흙보산비료의 질을 높이고 있음.
 - 농장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흙보산비료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6,200여 톤의 후민산칼리를 생산 (로동신문 3.2)
 -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가기 위하여 황해북도에서는 곳곳에 후민산(뭍은 알카리에 풀리고 무기산과 작용시 앙금으로 가라앉는 토양부식질의 한부분)칼리 생산기지를 세우고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한달 남짓한 기간에 수만 정보에 널 6,200여 톤의 후민

산칼리를 생산하는 혁신을 이루어냄.

- 황해북도에서는 지난 시기 집짐승의 배설물을 이용한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기지를 세우고 많은 후민산 칼리를 생산하여 덕을 보고 있는 황주군의 경험에 기초하여 사리원시에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을 건설함.
- 사리원시에서 올해 근 600여 톤의 후민산칼리를 자체로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미곡협동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농장의 모든 작업반마다 생산기지를 꾸리도록 하고 있음.

○ 거름실어내기 94% 계선 돌파 (로동신문 3.13)

- 3월 11일 현재 전국적인 거름실어내기 실적이 94%를 넘어섬.
- 벽성군, 신원군, 봉천군, 청단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하루실적을 2배 이상 올리고 있으며, 최근 도적으로 하루에 수만 톤의 질 좋은 거름이 논밭에 실려나가고 있음.
- 평안북도에서는 3일 하루동안에만도 2만 수천 톤의 거름을 실어냄. 동림군, 태천군, 룡천군, 광산군에서는 거름원천을 모조리 찾아내면서 노동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거름실어내기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평안남도에서는 거름실어내기 계획을 150% 이상 넘쳐 수행함. 평성시, 안주시에서도 거름실어내기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음.

○ 유기질복합비료공장 조업식 진행 (로동신문 4.4)

- 수도 평양의 평천지구에 유기질복합비료공장이 훌륭히 건설됨.
- 넓은 부지에 야외적재장, 혼합장과 숙성장, 생산장 등이 갖춰진 공장에서는 오수정화장의 침전물, 연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여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대량생산하게 됨.
- 조업식이 3일에 진행되었으며 내각총리 최영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 문경덕, 리경식 농업상, 황학원 도시경영상, 관계부문 일꾼, 공장종업원, 평양시 내 근로자들이 참가함.

□ 살림집

○ 살림집 내부미장 90% 돌파 (로동신문 2.12)

- 건설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살림집 건물의 내부미장실적은 90%

를 넘어서고 공공건물과 봉사시설을 포함한 20여 동의 건물에 대한 내부건축 설비와 각종 건구설치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고 있음.

- 일부 시공단위에서는 이미 살림집 내부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맡은 봉사시설건설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음.
- 당조직의 지도 밑에 건설지휘부와 시공단위 일꾼들은 만수대지구건설에 대한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공사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수도건설총국 아래 여러 단위에서도 모든 힘을 쏟고 있음.

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 개성공단 北근로자 5만 명 돌파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가 지난 2004년 말 공단 가동 이후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는 1일 “북측이 지난달 26일 449명을 추가로 공급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5만 3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이들 가운데 여성이 7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대졸 9.5%, 전문학교 8.7%, 고졸 81.8% 등 전원이 고졸 이상임.
- 통일부는 “5만 명을 돌파했지만, 현재 123개 남측 입주기업의 수요 기준으로는 2만 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달러 정도로 남측 기업이 북측 당국에 달러로 지급함.

연합뉴스, "개성공단 北근로자 5만 명 돌파", 2012.2.1

☐ 北 25년간 재난 손실 240억 달러

- 1987년 이후 북한에서 자연재해와 사고로 최소 2,700여 명이 사망하고 24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벨기에 재난 관련 연구소 통계를 인용해 2일 전함.
-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는 이 기간 북한이 국제기구에 신고한 자연재해 중 10명 이상 사망하거나 100명 이상에 피해를 준 재해는 홍수 20건을 포함해 총 28건이라며 이 같이 밝힘.
- 연구소는 또 같은 기간 교통사고, 화재 등 인재(人災)로 목숨을 잃은 북한 주민은 최소한 750명이며,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사고는 2004년 4월 발생한 용

천 열차사고라고 전함.

-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사고가 잦았던 해는 1993년으로, 지난 25년간 발생한 대규모 사고 10건 중 4건이 그해에 발생함. 그해 7월 비행기 사고로 66명이 사망하고, 열차사고, 붕괴와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최소한 223명이 목숨을 잃었음.

연합뉴스, "北 25년간 재난 손실 240억 달러", 2012.2.2

☐ UN "北인구 2030년 2,618만 명...7% 증가"

- 2030년 북한인구는 현재보다 소폭 증가한 2,618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자료를 인용해 7일 전함.
- 경제사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1 아시아태평양 인구와 개발지수'에 따르면 2011년 중순 북한인구는 총 2,445만 1천명으로 추산돼 전체 58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19위였음.
- 또 북한의 출산율은 현재 수준의 인구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 출산기준인 2.1명에 못 미치는 2.0명이었고, 14세 미만 인구 증가율은 -1.4%를 기록해 2030년 북한인구는 현재보다 7% 늘어난 2,61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남한인구는 북한보다 배가 많은 4,839만 1천명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현재보다 4% 정도 늘어난 5,033만 5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사회위원회는 예상함.

연합뉴스, "UN "北인구 2030년 2,618만 명...7% 증가"", 2012.2.7

☐ 北 하루이용자 10만 명 대형장마당 최소 2곳

- 북한에서 하루 이용자가 10만 명에 달하는 장마당이 최소한 2개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칼 거쉬만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회장은 북한에 있는 50개 장마당의 위치와 규모, 거래되는 물품의 종류 등에 대해 NED 산하 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힘.

- 방송은 장마당 상인 사이에 자리 이용에 관한 권리가 거래되고 비공식 은행체제도 생겨나는 등 자본주의 시장 고유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함.
 - 방송은 이번 조사가 중국을 오가는 북한의 장마당 상인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등을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장마당 상인의 신분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함.
- 연합뉴스, "北 하루이용자 10만명 대형장마당 최소 2곳", 2012.2.8

□ 北 외국투자은행에 영업세 면제…법 개정

- 북한이 최근 외국투자은행법을 수정·보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개정된 외국투자은행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우대조건과 관련해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의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 기업소득세를, 조선은행(북한은행)들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해 얻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기존법은 거래세 면제를 규정하되 영업세에 관한 규정은 없었음.
 - 기존 외국투자은행법에는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 간은 50% 범위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 면제에서 ‘50% 한도’의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임.
 - 중앙통신은 “5개장, 32개조로 구성된 법에는 외국투자은행의 분류와 설립 지역, 소유권, 경영활동의 독자성 등의 내용이 밝혀져 있다”고 소개함. 북한이 외국투자은행법을 손질한 것은 외국 자본을 적극 유치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임.
- 연합뉴스, "北 외국투자은행에 영업세 면제…법 개정", 2012.2.9

□ 작년 중국방문 北주민 15만명 넘어…사상최대

-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사람이 15만 2,300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중국 국가여유국 발표를 인용해 10일 전함. 이는 2010년의 11만 6,400명보다 약 31% 늘어난 것임.
- 작년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 중 절반가량(7만 5천여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취업이 목적이고, 회의 참석이나 사업 목적 방문이 3만 9천여명, 관광객은 4,500여명이었음.

- 교통수단별로는 선박 이용자가 6만 2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항공기 약 3만 4천명, 자동차 약 3만 2천명, 기차 1만 9천여명, 도보 5,200여명 순이었음.

연합뉴스, "작년 중국방문 北주민 15만명 넘어...사상최대", 2012.2.10

□ 北 외국투자기업등록법·세금법도 개정

- 북한이 최근 외국투자기업등록법과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과산법을 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의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이 달라졌다”며 “2011년 12월 21일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 등의 내용이 밝혀져 있는 이 법은 6개 장에 34개 조로 구성됐다”고 전함.
- 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투자기업과산법도 수정·보충(개정)됐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설명하지 않음.
- 북한은 지난달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과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등을 개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9일에도 외국투자은행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외국투자은행법을 개정했다고 소개함.

연합뉴스, "北 외국투자기업등록법·세금법도 개정", 2012.2.10

□ 북한, 기술관료 등 1천명 중국 파견

- 북한이 김정은 신체제 이후 경제와 무역 분야의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 등 약 1천 명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도쿄신문이 15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복수의 북한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월 말 이후 경제 무역 부문의 중견간부와 기술관료 등 1천 명을 중국의 북동부와 남동부의 도시에 있는 민간기업과 공장 등을 시찰하도록 파견했다고 전함.
-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파견단을 10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나눠 중국 북동부의 선양과 다롄, 옌지 등 주요 도시와 남동부의 상하이에 있는 민간 기업과

공장 등을 시찰하도록 함.

연합뉴스, "북한, 기술관료 등 1천명 중국 파견", 2012.2.15

□ 라선특구 4~6호 부두 50년 사용권 中에 넘겨

-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북한 라선특구의 4, 5, 6호 부두 건설권과 50년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15일 베이징(北京)과 서울의 북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양국이 작년 말 동북 3성과 라선특구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실제 투자금 30억 달러 규모의 라선특구 기반시설 건설 계약을 했음.
- 중국은 먼저 라진항에 4호 부두를 7만 톤 규모로 건설하고 여객기와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장, 그리고 두먼-라선특구 구간의 철도건설에 2020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이 계약은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중국 정부 간에 체결됐으나 양국 모두 이 사실 공개를 꺼리고 있음. 이 계약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전후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밝힘.

연합뉴스, "라선특구 4~6호 부두 50년 사용권 中에 넘겨", 2012.2.15

□ 北 OECD서 4,300만 달러 빌려…절반 상환

- 북한이 지난 7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약 4,300만 달러를 빌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갚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에르날도 드 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국 연구원은 북한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620만 달러를 OECD에서 빌렸으며 “OECD가 최근 7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한 대출금은 4,315만 달러이고 이 중 북한이 되갚은 금액은 2,233만 달러”라고 이 방송에 말함.
- 그는 또 “최근 대출은 2010년 쿠웨이트가 빌려준 626만 달러로 북한은 이 중 364만 달러를 OECD 산하의 국제개발기금(OFID)에 갚았다”고 전함.
- OECD는 현재 북한에 경제기반 시설과 교육, 인도주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무상 지원하거나 빌려주고 있음.

연합뉴스, "北 OECD서 4,300만 달러 빌려…절반 상환", 2012.2.16

□ 김정은, 생일 맞아 黨간부들에 '남방과일' 선물

- 2월 16일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도당 간부들에게 김정은 명의의 선물상자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특별공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 양강도 혜산 소식통은 16일 통화에서 “지난 13일 도당에서는 책임비서, 보안서장, 보위부 책임비서, 대의원 등 간부들에게 김정은의 이름이 쓰인 선물상자가 전달되는 ‘선물수여식’이 있었다”고 전함. 선물상자에는 남방과일, 당과류 등이 들어있었다고 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청진시는 5일분, 무산군은 7일분의 배급이 있었고 기름도 1인당 200g씩 쫘다”고 말함. 또 “세대별로 1.5kg씩 당과류 공급도 있었고, 무산광산에서는 2·16기념 생산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노동자에게 명절 상금(상여금)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고 덧붙임.
- 지역에 따라 특별공급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지역 시·군 단위 양정사업소의 보유 식량 사정에 따라 명절공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임. 지난 음력설의 경우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공급받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임.

데일리NK, "김정은, 생일 맞아 黨간부들에 '남방과일' 선물", 2012.2.16

□ 세계농림업센터, "北 경사지 시범사업 확대"

- 국제 연구기관인 세계농림업센터가 스위스 외교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처(SDC)와 함께 2014년까지 북한 내 경사지 시범사업을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세계농림업센터 주 치안추 박사는 20일 “현재 사리원시 등 황해북도 일부 군에서 1천 ha에 이르는 땅에 870가구가 참여해 경사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힘.
- 세계농림업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스위스개발협력처와 함께 경사지 관리법을 전수하고 있다”며 “앞으로 3년 동안 황해남도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해 1,500가구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함.

- 치안추 박사는 “시범사업에는 주로 가정주부나 은퇴한 노인들이 가족을 대표해 참여해 1인당 1ha의 땅을 담당해 밭벼와 야채, 고구마, 수박, 과일, 호두, 밤 등 다양한 작물을 심고 있다”고 설명함. 또, “먹고 남는 작물은 당국이나 다른 마을과 거래해 비료, 농자재 등과 맞바꾸기도 하고 시장에 팔기도 한다”고 말함.

노컷뉴스, "세계농림업센터, "北 경사지 시범사업 확대"", 2012.2.21

☐ 中, 훈춘-北원정리 잇는 新두만강대교 건설 계획

- 북한 라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를 확보한 중국이 올해 라진항으로 가는 관문인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훈춘(琿春)과 북한의 원정리를 잇는 새로운 두만강대교 건설에 나선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2일 보도함.
- 현재의 두만강대교는 1936년 세워진 노후 교량인 데다 폭이 6.6m에 불과해 차량의 교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연간 60만 톤을 통관하는데 그치고 있음.
-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새 다리는 기존 다리의 상류 50m 지점에 길이 577m, 폭 25m(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짐. 이 다리가 세워지면 연간 물동량이 지금의 2배 수준인 12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됨.
- 연변주는 또 북·중이 공동 개발기로 한 라선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착공식을 한 중국 아태시멘트의 라선공장도 올해 착공하고, 라선특구 전력 공급망 구축에도 나설 계획임. 연간 100만 톤을 생산하는 이 시멘트공장이 세워지면 라선특구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中, 훈춘-北원정리 잇는 新두만강대교 건설 계획", 2012.2.22

☐ 북한주민 기대수명 69.2세...세계 151위

- CIA는 홈페이지에서 'The World Factbook'란을 통해 세계 230여개 국가의 지리, 시민과 사회, 경제 등 일반 현황을 각종 수치를 제시하면서 간단히 소개함. CIA는 북한의 자료를 지난 8일 업데이트했음.
- 23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홈페이지(www.cia.gov)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65.34세, 여성 73.24세로 남녀 평균이 69.2세로 추정됨.

-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지난해 CIA가 홈페이지에 올린 68.9세보다 0.3세 늘어난 것임. CIA는 지난해 북한의 평균 기대수명을 남성 65세, 여성 72.9세로 추산했음.
- CIA는 북한의 예상인구를 약 2,400만 명으로 추정함. 또 북한의 2011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010년과 같은 1,800달러로 추산했음. 수출과 수입은 2010년 기준으로 25억 달러와 35억 달러로 2009년 20억, 30억 달러에 비해 약 5억 달러씩 증가함.

연합뉴스, "북한주민 기대수명 69.2세...세계 151위", 2012.2.23

☐ 北, 해산물 수출 연초 중단...태양절 준비

- 북한 김정은 군사위 부위원장이 오는 4월 15일 조부인 김일성주석 100회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식량 배급을 늘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연초부터 해산물 수출을 금지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함.
- 북한의 대외 수출 금지조치는 연초에 내려졌으나, 게와 해산물 잡이로 유명한 동해안의 특별경제구역에는 이달 중순쯤 내려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 경우 소규모 사적인 거래나 불법 수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수출은 중단된 상태임.
- 현재 북한의 해산물 수출은 지난 2010년 전체 수출량의 4%에 해당하는 6,500만 달러를 기록했음. 또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북한의 고립이 심해지면서 더욱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2010년의 경우 중국은 북한 무역 총액의 83%나 차지함

연합뉴스, "北, 해산물 수출 연초 중단...태양절 준비", 2012.2.25

☐ 北, 베트남 농산물 업체에 30만 달러 투자

- 북한이 2011년 베트남의 한 농산물 가공 업체에 미화 3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것으로 확인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치민 무역관의 강준경 과장은 "2011년 기준으로 북한의 베트남에 대한 누적 투자 규모가 모두 4건에 70만 달러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투자가 비교적 큰 규모"라며 "이 업체가 생산한 가공 농산품을 북한에 들여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함.

- 강 과장은 “베트남과 북한 간 투자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은 없는 상태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아진다면 하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풀이함.

노컷뉴스, "北, 베트남 농산물 업체에 30만 달러 투자", 2012.2.25

□ 현대研 "작년 北 1인당 GDP 720달러 추정"

-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26일 ‘2011년 북한 1인당 GDP 720달러’ 보고서에서 영아사망률과 곡물생산량 자료를 바탕으로 GDP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전년보다 4% 넘게 증가한 720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김 연구원은 “지난해 식량 작황이 나아졌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국가 역량을 단기적으로 집중했기 때문이다”고 증가 배경을 설명함.
- 대외적으로는 북중 교역 확대, 개성공단 유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북중 교역액은 2010년 34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56억 3천만 달러로 62.4% 늘었음. 개성공단 교역액은 14억 4천만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17.7% 증가함.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2010년 2,178만 달러의 네 배가 넘는 9,771만 달러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현대研 "작년 北 1인당 GDP 720달러 추정"", 2012.2.26

□ 태양절 배급용 쌀 1톤 가져오면 中 방문 허용

- 중국 친척을 방문해 식량 1톤을 받아와 당국에 내줬다는 약속을 하는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도강증을 대거 발부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강증을 발부 받은 사사(私事)여행(중국 친척 방문)자들이 최근 수십 명 단위로 양국 세관을 거쳐 중국으로 입국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27일 알려줌.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초 인민반장이 ‘4월 5일 이전에 쌀 1톤을 가지고 귀국할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단기 도강증을 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에 신청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함.

- 이번 친척 방문 허용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태양절 명절공급 물자를 도(道) 차원에서 자체 해결하라는 당 지시에 따라 도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들의 방문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사사여행 허용 소식이 전해지고 시장(장마당)에서 식량 가격이 다소 내리자 주민들은 반가워하는 기색임. 함경북도 청진 식량가격은 지난주 1kg 3,200원에서 27일 현재 3,000원, 위안화도 1위안 605원에서 600원으로 떨어짐.

데일리NK, "태양절 배급용 쌀 1톤 가져오면 中 방문 허용", 2012.2.27

☐ 中하얼빈 출발 北관광 본격화...4월 전세기 취항

-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서 북한을 다녀오는 관광이 오는 4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 고려항공 관계자가 지난 22일 하얼빈을 방문, 현지 관광업체인 세일 국제여행사와 전세기 취항 협약을 했다고 조선족 매체인 흑룡강신문이 28일 보도함.
- 이번 협약에 따라 고려항공은 오는 4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2회 하얼빈-평양 노선에 76석 규모의 전세기를 운항함. 관광 성수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132석 규모의 전세기도 추가 투입할 계획임.
- 하얼빈-평양 노선 전세기 취항에 따라 중국에서 북한을 운항하는 항공노선은 베이징-평양, 선양(瀋陽)-평양 노선과 지난해 7월 잇달아 개통한 상하이-평양, 산시(陝西)성 시안(西安)-평양 노선 등 모두 5개로 늘었음.
-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에서 라진항을 거쳐 만경봉호로 금강산을 둘러보는 해상관광코스도 개통, 3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400여 명의 중국인이 금강산을 다녀옴. 겨울철 중단됐던 이 해상관광은 오는 4월 재개될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中하얼빈 출발 北관광 본격화...4월 전세기 취항", 2012.2.28

☐ 北 평양시 행정구역 일부 개편

- 북한이 2010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황해북도에 편입했던 강남군을 다시 평양시에 편입한 것으로 29일 확인됨.

-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조선중앙연감 2011’(2011년 10월 25일 발행)의 조선행정구역도를 보면 전년에 나온 ‘조선중앙연감 2010’에서는 황해북도에 속해 있던 강남군이 다시 평양시에 편입된 것으로 표시돼 있음.
 - 통일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이 남포시를 특별시에 추가해 11개 시·도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했다며 기존에 평양시 남쪽지역인 강남군, 중화군, 상원군, 승호구역 등을 황해북도에 편입해 평양시를 축소 개편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 대북 전문가는 강남군의 평양시 재편입과 관련, “재편입 조치의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과거에 강남군이 평양시의 주요 농업 생산지역이었다는 점에서 평양 시민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배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연합뉴스, "北 평양시 행정구역 일부 개편", 2012.2.29

□ 북-중 교역 1월에도 18% 증가…4억 달러 넘어

-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1월 교역액이 4억 달러를 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함.
-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북중 교역액은 4억 1,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남.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 3,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 늘었고, 수입액은 2억 7,800만 달러로 24% 증가함.
-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으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7천만 달러였음.

연합뉴스, "북-중 교역 1월에도 18% 증가…4억 달러 넘어", 2012.3.2

□ 北 "사회주의 선경 만들자"…산림녹화에 총력

- 북한이 이른바 ‘강성대국’ 원년인 올해 들어 나무심기를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음.
-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의 식수절(植樹節)인 2일 미사일지도국을 방문해 기념식수를 하며 “식수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과 들을 푸른 숲 우거진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면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강조함.
- 북한 매체들도 최근 이틀이 멀다하고 산림녹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궐기모임, 양묘장 소식 등을 전하며 나무심기를 그 어느 때보다 독려하고 있음.

-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이 식수절을 전후로 이처럼 산림녹화를 부쩍 독려하는 것은 일단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임.

연합뉴스, "北 "사회주의 선경 만들자"...산림녹화에 총력", 2012.3.5

☐ 中연변자치주, 작년 대북교역 中전체 40% 차지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지난해 대북 교역액이 중국 전체 대북 교역의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변일보가 7일 보도함.
- 신문은 지난해 연변과 북한의 교역액이 5억 9,300만 달러(6,667억 원) 규모로, 중국 전체 대북 교역액 15억 달러(1조 6,800억 원)의 39.5% 수준이라고 밝힘. 이는 또 지린성의 지난해 대북 교역액 7억 1,800만 달러(8천억 원)의 82.6%에 달함.
- 그러나 연변일보가 밝힌 지난해 중국의 대북 교역액은 한국무역협회가 파악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임. 무역협회는 지난 1월 지난해 북·중 교역액이 총 56억 2,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2.5% 증가했다고 발표함.

연합뉴스, "中연변자치주, 작년 대북교역 中전체 40% 차지", 2012.3.7

☐ 강원 대표작물 감자·옥수수.. '통일농산물'로 육성

- 7일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시험장에 따르면 최근 남북교류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 4개 지역에 찰옥수수 시범단지 10ha를 조성, 현지 적응시험을 추진할 계획임.
- 옥수수시험장은 앞으로 고성 찰옥수수를 '통일 옥수수' 등의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 연변에서는 올해 4~10월 북한에 적응할 수 있는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유전자 수집과 현지 적응시험을 진행할 예정임.
- 도 농업기술원 산하 특화작물시험장도 금강산과 가까운 고성군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통일감자 적응성 검정사업을 추진함. 이 감자는 1년에 한 번 생산하는 일반 감자와는 달리 연간 두 번 생산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품종 '미백'임.
- 특화작물 시험장은 이를 '금강산 감자'나 '통일감자' 등의 브랜드로 육성하고 훗날 남북교류가 진전되면 북한 지원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

침입.

연합뉴스, "강원 대표작물 감자·옥수수..'통일농산물'로 육성", 2012.3.7

□ 北 투자유치 위해 남북경협보험 모델 도입

- 북한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남북경협보험과 비슷한 투자손실 보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2004년 도입된 남북경협보험은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뒤 여러 외부요인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을 때 손실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임.
- 북한경제 소식에 밝은 한 대북소식통은 11일 “북한이 최근 조선국제보험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보험사가 국제보험에 재가입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또한 그는 “지난해 말 신설되거나 개정된 경제법은 14개로 모두 ‘투자재산을 국유화하지 않으며 거둬들일 경우 보상한다’는 규정이 삽입됐다”며 “이런 조치들이 더욱 과감한 경제개혁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북한은 지난해 12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채택했다고 밝힌 뒤 최근 3개월 사이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등 10개 가까운 법을 개정했다고 잇따라 발표함.

연합뉴스, "北 투자유치 위해 남북경협보험 모델 도입", 2012.3.11

□ 美 1월 대북수출 486만 달러…대부분 구호용

- 올해 1월 북미 간 교역액이 486만 4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함. 이는 지난해 전체 북미 교역액 940만 달러의 절반을 넘는 수치임.
- 수출입별로 보면 북한의 대미수출은 전혀 없고 모두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것임. 미 상무부는 어떤 품목을 북한에 수출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양국 간 상업적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대북 구호용으로 지원된 물품으로 보임.

연합뉴스, "美 1월 대북수출 486만 달러…대부분 구호용", 2012.3.13

□ 北산림 매년 평양 면적 사라져

- 북한 산림면적이 지난 20년 동안 30% 정도 줄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 FAO가 최근 발표한 ‘2011 세계 산림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의 산림 면적은 전체 국토의 47%인 566만 ha로 1990년 820만 ha에 비해 30.9% 줄었음. 지난 20년 동안 매년 평양시 면적에 해당하는 12만 7천 ha의 산림이 없어진 셈임.
- 베어진 나무는 연료용(591만1천m³)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산업용 목재 생산용 150만m³, 일반목재 생산용이 28만m³ 등이었음.
- 산림 면적이 줄면서 산림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도 1990년 2억 3,900만 톤에서 2010년 1억 7,100만 톤으로 30% 줄었다고 보고서는 밝힘.

연합뉴스, "北산림 매년 평양 면적 사라져", 2012.3.14

□ 북한은 지금, 대규모 과수원 건설 '붐'

- 북한이 최근 각 지방별로 대규모 과수원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함흥시의 한 주민은 14일 “김정은 대장의 지시로 협동농장들마다 과수원 조성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개인들의 땀기밭까지 다 빼앗아 과수원을 만들고 있어 여론이 아주 좋지 않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들은 “2월 초에는 협동농장들마다 과수작업반을 새롭게 내오고 기존에 있던 과수농장들도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원점부터 다시 정리하라는 농업성의 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함.
- 양강도 대흥단군의 한 농업간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과수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과밭과 포도밭을 대규모로 조성하라는 김정은 부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생산된 사과와 포도들은 모두 유럽으로 수출하고 대신 쌀을 사오게 될 것”이라고 말함.

노컷뉴스, "북한은 지금, 대규모 과수원 건설 '붐'", 2012.3.15

□ 남북관계 악화에도 1~2월 남북교역 36% 증가

- 5·24 대북제재 조치 속에서도 올해 1~2월 남북교역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남북교역액은 3억 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2억 3,500만 달러보다 36%나 증가함.
- 1~2월 남북교역을 항목별로 보면 대북 반출이 1억 6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간(1억 800만 달러)보다 48%나 급증했고, 대북 반입도 전년 동기간(1억 2,600만 달러)보다 25% 늘어난 1억 6천만 달러에 달함.
- 남북관계 경색에도 남북교역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개성공단을 매개로 한 남북교역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임.

연합뉴스, "남북관계 악화에도 1~2월 남북교역 36% 증가", 2012.3.16

□ 北, "지난해 EU 교역 최대 흑자"

- 미국의 소리 방송은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11년 대북 교역 통계를 인용해 “북한이 2011년 유럽연합과의 교역에서 8,12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해 지난 2010년 3,100만 유로보다 2.6배 이상 많은 흑자를 냈다”고 전함.
- 북한이 2011년 유럽연합에 수출한 금액은 1억 2,180만 유로로, 2010년 9,900만 유로보다 23.3% 증가했으며, 북한의 대 유럽연합 수입액은 2010년 6,800만 유로보다 40.3%나 감소한 4,060만 유로로 집계됨.
- 북한의 대 유럽연합 수출품 가운데는 석유와 광물이 7,100만 유로로 전체의 약 60% 차지하고 이어 의류가 2,300만 유로, 기계류와 수송장비가 1천만 유로로 뒤를 이었음. 북한은 적은 규모지만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정제한 석유 등의 유류를 네덜란드 등 유럽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기계류와 수송 장비로 1,400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기타제조업 제품이 1,100만 유로, 농산품이 700만 유로 순이었음.

노컷뉴스, "北, "지난해 EU 교역 최대 흑자"", 2012.3.27

☐ 북-중 교역 사상최대 기록

- 2012년 1월과 2월의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7억 7,7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로 집계됨. 미국의 소리 방송은 28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2012년 1-2월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7억 7,700만 달러로 2011년 5억 1,900만 달러보다 50% 정도 늘었다고 밝힘.
-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3억 3,600만 달러로 2011년 2억 1,800만 달러보다 54% 늘었고, 북한의 대중국수입액도 2011년 3억 200만 달러보다 46% 늘어난 4억 4,100만 달러로 집계됨. 북한의 최대 수출품은 석탄으로, 1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액의 54%를 차지함.
- 2012년 들어서도 북-중 교역액이 늘어남에 따라 2011년 사상 최고 기록인 56억 3,9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노컷뉴스, "북-중 교역 사상최대 기록", 2012.3.29

☐ 미국방부 "대북식량 지원 중단"

-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계획에 따라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대북식량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힘.
- 미국 국방부 피터 라보이 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은 그들이 약속을 지킬 뜻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한에 영양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함.
-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또 “(제3차 고위급 회담의) 양측 합의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당시 우리는 인공위성 발사도 미사일 기술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로 간주하겠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함.
연합뉴스, "미국방부 "대북식량 지원 중단"", 2012.3.29

☐ 北 주민들, "최고인민회의 농업개혁 기대"

- 북한주민들이 오는 4월 중순 열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농업개방 여부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평안북도의 소식통은 30일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표자회에서 개혁과 관련된 헌법개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크게 돌고 있다”며 “농업부문 만큼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소식통은 “농업부문 개혁 없이는 식량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농업개혁을 논한다면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표자회 밖에 기회가 없다”고 말함.
- 함경북도 소식통도 “아직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최고인민회의에서 농업개혁에 대한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함.

노컷뉴스, “北 주민들, “최고인민회의 농업개혁 기대””, 2012.3.31

□ 北, 협동농장 농장원에 농사비용까지 떠넘겨

- 북한 각 지역 협동농장에서 봄철 농사 준비를 위해 퇴비에 이어 화학비료까지 농장원들에게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강도 소식통은 2일 데일리NK와 가진 통화에서 “협동농장 관리위가 농사철인 요즘 농장원들에게 1인당 화학비료 5kg을 내라고 과제를 내렸다”면서 “퇴비야 인분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화학비료는 무슨 수로 만들어 내겠느냐”라고 하소연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농장 관리위원회 간부들은 농장원들에게 현물이 없으면 돈으로 내라고 강요하고 있음. 농장에 다니는 가족수가 2명인 경우는 10kg을 내야 함. 북한에서 비료 가격은 쌀 가격(1kg 3,000원)과 엇비슷함. 부부가 농장원인 경우 세대당 3만 원을 내야 함.

데일리NK, “北, 협동농장 농장원에 농사비용까지 떠넘겨”, 2012.4.2

□ 美과학자 협회, “北 산림학자 미국 연수 추진”

- 북한에서 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한 미국과학자 협회 관계자는 북한의 산림 관련 학자나 공무원의 미국 연수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힘.

-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외교센터 노만 뉴라이터 선임고문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산림경관 복원을 위한 국제학회에서 만난 북한 당국자와 학자들과 북한의 산림 복원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고 설명함.
- 뉴라이터 고문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고집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졌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북한이 지속해서 교류하고 협력하면 두 나라의 정치적인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국제학회’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이스라엘, 중국 등지에서 과학자 14명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학자 85명과 함께 북한의 산림 황폐화를 막고 경관을 복원시키기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음.

노컷뉴스, "美과학자 협회, "北 산림학자 미국 연수 추진"", 2012.4.3

☐ 北, 민경련 중국 사무소 ... "남북한 관계악화로 어려움"

- 북한 당국이 대남 경협 창구인 민경련 베이징과 단둥 사무소의 인력을 새로 구성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짐.
- 대북경협 소식통은 2일 “북한 당국이 최근 북한의 대남 경협 창구인 민경련 중국 단둥 대표부에 황명호 대표와 이완배, 조철호 부대표를 임명하고 베이징 사무소 소장에는 이영호 전 민경련 부서기가 새로 부임했다”고 밝힘.
-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전인 지난해 말 중국 소재 민경련 간부들을 모두 교체했지만, 장례식과 새해 계획 등 총화기간 관계로 과거보다 인적구성이 조금 지연된 것 같다”고 전함.
- 소식통은 그러나 “현 정부 임기내 남북경협 재개가 불확실한데 다 5.24 교역 중단 조치로 대북 기업인의 방북 금지와 제3국 접촉마저 금지돼 대남 경협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노컷뉴스, "北, 민경련 중국 사무소 ... "남북한 관계악화로 어려움"", 2012.4.5

☐ UN "북한 인구 2050년까지 2,600만 명 돌파"

-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2050년까지 북한 인구가 2,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전함.

- DESA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세계 도시화 전망 2011년 개정판'에서 2010년 북한 인구를 2,434만 6천 명으로 추산하고 2050년에는 이보다 8% 정도 증가해 2,638만 2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함.
- DESA의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 인구 중 도시인구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2010년 북한의 도시 거주 인구는 1,4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0.2%인데 비해 2050년에는 약 1,900만 명으로 도시인구 비율이 72%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함.

연합뉴스, "UN "북한 인구 2050년까지 2,600만 명 돌파"", 2012.4.10

☐ 중국, 1996년부터 매년 20만 톤 대북 식량지원

- 중국이 1996년부터 해마다 평균 20만 톤 이상의 식량을 북한에 원조한 것으로 나타남.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국제 식량원조 정보체계'가 집계한 통계자료에서 “중국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4년 동안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330만 톤을 넘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함.
- 연도별로는 2005년이 53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2001년이 43만 톤으로 뒤를 이었지만, 1996년에는 10만 톤에 그침.
- 중국이 북한에 가장 많이 지원한 곡물은 옥수수가 137만 톤으로, 전체 원조 식량의 42%를 차지했으며, 이어 밀가루 1백만 톤, 쌀 66만 톤 등의 순이었음. 한편, 같은 기간 중 세계가 북한에 원조한 식량은 1,260만 톤으로 집계됨.

노컷뉴스, "중국, 1996년부터 매년 20만 톤 대북 식량지원", 2012.4.13

☐ 美, 대북 식량지원 중단

- 미국은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밝힘.
- 벨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플로리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동승한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합의를 진척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오늘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거부한다는 점과 특히, 북한이 도발적일 행위를 계속할 경우 추가 조치 준비에 나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연합뉴스, "美, 대북 식량지원 중단", 2012.4.14

□ 美, 안보리에 北 17개 기관 자산 동결 요구

-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에 북한의 17개 기관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함.
- 이는 현재 자산이 동결된 8개 기관단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의 대응이 주목됨.
- 일본과 유럽연합도 향후 독자적인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제재 대상에 오를 북한의 기관단체는 증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美, 안보리에 北 17개 기관 자산 동결 요구", 2012.4.18

□ 北농업성, 비료 20만 톤 해외구매 지시

- 북한 농업성이 무역성 일꾼에게 비료 20만 톤을 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이 25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52호)은 이 지시에 따라 무역성 일꾼 10여 명이 비료를 포함한 농자재 구입을 위해 해외에 파견됐지만 중국산 비료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은 올해 1월부터 비료 수출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비료수요 기간에 특별 관세율을 부과해 화학비료와 염화암모늄 등 각종 비료제품은 1~5월과 10~12월에 75%의 특별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음.
- 소식지는 또 농업성이 올해 농기구 수리 예산으로 200만 달러를 배정받아 발갈이에 필요한 트랙터 수리에 먼저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트랙터가 1950~1960년대에 도입된 러시아산이라 부품 구입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힘.

연합뉴스, "北농업성, 비료 20만 톤 해외구매 지시", 2012.4.25

□ 北 10대 인구 2050년에 지금보다 24%감소

- 북한의 10대 청소년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보다 24% 감소할 것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전함.
- 유니세프는 25일 내놓은 ‘어린이 발전 백서’(Progress for Children)에서 2010년 북한의 10~19세의 청소년 인구를 412만 3천명으로 추산하고 2050년에는 이보다 24% 감소한 311만 6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따라 전체 북한인구 중 10대 청소년 비율도 2010년 17%에서 2050년에는 12%로 줄어든 것으로 내다봄. 북한의 청소년 비율은 1950년엔 28%였음.

연합뉴스, "北 10대 인구 2050년에 지금보다 24%감소", 2012.4.26

□ 중국, 훈춘시에 ‘두만강 국제합작구’ 설립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이 이달 25일 발표한 북-중 경제합작단지는 중국 지린성 훈춘시에 90평방km 규모로 건설돼 앞으로 북-중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새로 조성되는 시범구에는 북-중 훈춘경제합작단지 외에 국제산업단지, 국경무역합작단지, 중-러 훈춘경제합작단지 등이 들어서게 됨. 국무원은 “2015년까지 시범구에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는 무역이 번성하는 중요한 경제지역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 국무원은 북-중 두 나라가 공동 개발 관리하는 라선경제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훈춘시에서 라진항을 경유해 상하이로 통하는 화물 운송사업이 성공한 점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함.

연합뉴스, "중국, 훈춘시에'두만강 국제합작구'설립소", 2012.4.27

□ 北 무연탄 매장량 세계 2위…지하자원 보물고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30일 북한의 무연탄 매장량이 150억 톤으로 추정되며 매장량 면에서 세계 2위라고 보도함.
- 신문은 “종래 제철에서는 코크스가 필수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코크스 대신 무연탄으로 제철공업을 발전시켜왔다”며 “앞으로 주철철 생산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 인민경제 발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나라(북한)는 세계광물의 표본실이라 불리는 지하자원의 보물고”라며 “매장량에서 무연탄 2위, 마그네사이트 3위, 아연 7위, 텅스텐은 9위를 차지한다”며 “주목되는 것은 우라늄, 망간, 티타늄 등 최첨단기술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자원이 많다는 것”이라고 전함.
- 신문은 또 “(함경남도) 단천지구를 비롯한 각지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54억 톤”이라며 “단천은 원래 수심이 깊은 항인데 수년간의 항만 공사가 끝나고 머지않아 동해의 또 하나의 근대적인 무역항으로 출발한다”고 소개함.

연합뉴스, “北 무연탄 매장량 세계 2위…지하자원 보물고”, 2012.4.30

2. 식량 사정

☐ 北 김정은, 군용 쌀 일부 주민에 배급 지시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고 지도자에 오른 직후인 지난달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였던 군용 쌀 일부를 다시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북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지난달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여 저장해둔 군용 쌀인 '헌군미(獻軍米)' 약 50만 톤 가운데 일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함.
- 이는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방침이었던 선군(先軍) 노선을 수정한 조치로, 주민 중시의 모습을 보여 구심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함.

연합뉴스, “北 김정은, 군용 쌀 일부 주민에 배급 지시”, 2012.2.4

☐ 농촌경제연구 “북한 올해 식량부족 완화될 듯”

- 농촌경제연구원은 ‘북한농업동향’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식량계획(WFP) 등의 자료를 근거로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곡물과 지난해 생산량을 540만 톤, 466만 톤으로 각각 추산, 부족량을 약 74만 톤으로 추정함.
-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수매양정성이 2012년에 32만 5천 톤을 상업적으로 수

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올해 식량 부족량은 41만 톤에 그칠 것으로 내다봄.

- 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예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전망한 근거로 우선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음. 작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전년도보다 8.5% 늘었음. 또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인 올해를 대비해 식량을 비축해 왔다는 점도 근거로 꼽힘.
- 보고서는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잠정 중단하면 미국이 북한에 식량 24만 톤을 지원할 예정이고, 중국도 식량 50만 톤과 원유 25만 톤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 호전될 수 있다고 전망함.

연합뉴스, "농촌경제연구 "북한 올해 식량부족 완화될 듯", 2012.2.15

☐ 北 2월 하루 395g 식량 배급

- 당국은 2월에 주민 한 명 당 하루 395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이 밝힘.
- 세계식량계획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1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2월 배급량은 구성 비율이 군마다 다르지만 쌀이 20%에서 60%, 옥수수가 40%에서 80% 정도 섞여 있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함.
-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배급량은 지난 해 7월부터 9월까지 200g에 머물다가 가을 수확 이후 10월에는 355g으로 늘어났으며, 11월에는 365g, 12월에는 375g, 1월에는 395g으로 계속 늘었다”고 밝힘.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2월 중 북한 주민 210만 명에게 5,900톤의 식량을 분배하고, 59개 군에서 220차례의 분배감시 활동에 나섰음. 스카우 대변인은 “3월에는 1만 1,420톤의 옥수수가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힘.

노컷뉴스, "北 2월 하루 395g 식량 배급", 2012.3.2

☐ 北 1월 중국쌀 수입 급감…옥수수는 급증

- 북한이 올해 1월 중국에서 수입한 쌀의 양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 넘게

급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 전함.

-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1월 농축수산물 수출입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월에 중국에서 614톤(23만 6천 달러)의 쌀을 수입해 작년 동월의 1만 814톤(630만 달러)보다 94% 이상 급감함.
-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로 1,809톤(59만 6천 달러)을 수입해 전년도의 600톤(17만 4천 달러)보다 수량은 배, 금액은 3배 넘게 늘었음.
- 올해 1월 북중 간 농축수산물 교역액은 작년 1월의 3,537만 달러보다 16% 늘어난 4,100만 달러로 집계됨. 북한의 1월 대중수입 농축수산물은 작년 1월(2,378만 달러)보다 40% 늘어난 3,300만 달러였고, 대중수출은 작년 1월(1,158만 달러)보다 33% 줄어든 777만 달러였음.

연합뉴스, "北 1월 중국쌀 수입 급감...옥수수는 급증", 2012.3.8

☐ FAO, 北 '식량부족국' 재분류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4개 식량부족 국가에 다시 넣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 FAO는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3월호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아졌지만 지난 가을의 알곡 수확량 증가에도 경제난과 농자재 부족 등으로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 FAO는 북한 주민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을 174kg으로 잡고 식량 수요를 약 540만 톤(도정 후 기준)으로 추산함. 이를 기준으로 FAO는 식량 회계연도인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북한에서 약 74만 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함.

연합뉴스, "FAO, 北 '식량부족국' 재분류", 2012.3.9

☐ 北 식량난..."황해남도 아사자 속출"

-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4일 소식지에서 "지난해 여름 홍수피해를 본 황해남도 지역에 농작물 수확량이 전년보다 급감한 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100일 애도기간에 경제활동이 거의 중단돼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지는 “황해남도 도당 책임비서 등이 중앙당에 긴급구호를 요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식량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고 전함.
- 해주시의 한 무역일꾼은 “지금 황해남도의 식량 사정은 공화국(북한)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라며,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함. 황해남도 도당의 한 간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대표들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잇따른 충성자금과 책임단위에 바쳐야 할 과제들만으로도 너무 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함.

데일리NK, “北 식량난...“황해남도 아사자 속출””, 2012.4.4

□ 北 이상저온으로 농업생산 차질 우려

- 북한이 최근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업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됨. 8일 기상청에 따르면 3월 북한의 평균기온은 0.9도로 평년의 1.4도보다 0.5도 낮았음. 한동안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진 가운데 바람마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는 등 봄 같지 않은 날씨가 지속됨.
- 조선중앙통신은 “봄철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은 밀과 보리이며 3월 말부터 1단계로 씨뿌리기 한 논벼의 싹트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과중한 감자작물 생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비료사정은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보리와 밀, 감자의 수확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통 6~7월이 수확기인 이 작물들의 평균생산량은 약 55만~60만 톤인데 3월의 저온현상이 이어진다면 올해는 50만 톤 이하로 줄어들 공산이 높다”고 전망함.

연합뉴스, “北 이상저온으로 농업생산 차질 우려”, 2012.4.8

3. 가격 추이

☐ 중국산 식량 유입 소문에 北쌀값 폭락

- 북한에 중국산 식량이 대량으로 유입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쌀값 등 물가가 폭락하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5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42호)에서 함경북도 청진에서는 지난해 12월 1kg에 4,400원 하던 쌀값이 1월 18일께 3,500원으로 떨어졌고 20일께는 3천원대로 떨어졌다고 밝힘.
- 특히 2월 들어서는 2,700원까지 떨어져 4개월 만에 고공행진을 멈췄으며, 물가 하락 현상은 식품뿐 아니라 공산품, 건설 자재, 전자제품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임.
- 소식지는 “쌀값 폭락은 중국에서 대량의 입쌀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돈주들이 급하게 쌀을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지난 달 초 인민폐 거래가 금지돼 인민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함.

연합뉴스, "중국산 식량 유입 소문에 北쌀값 폭락", 2012.2.15

☐ 北시장 외화 통제 풀려…물가 완만한 상승세

- 북한 시장에서 달러와 위안(元)화가 다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유혼관철을 이유로 ‘외화사용금지령’을 내렸지만 최근 들어 단속이 유야무야 되면서 이전 거래량을 회복했다고 내부소식통이 알려줌.
- 양강도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거의 모든 물건이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조선쌀은 1kg에 5위안, 중국쌀은 4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살림집(주택) 같은 규모가 큰 거래는 물론 옷이나 신발 같은 생필품도 위안화로 거래되고 있다”고 말함.
- 환율과 더불어 식량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주 청진시장에서 kg당 3,000원 하던 쌀값이 17일에는 3,800원을 기록함. 북한 당국이 김일성의 100회 생일과 당 대표자회 준비를 위해 지방 주민들의 평양 유입을 봉쇄한 조치와

더불어 지방 도시 간 이동도 제한한 것이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됨.

- 양강도 소식통은 “내륙에서 들어오던 쌀이 대량으로 들어오지 못하자 장사꾼들이 식량가격을 올리고 있다”면서 “다음주에는 4,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함.

데일리NK, "北시장 외화 통제 풀려...물가 완만한 상승세", 2012.3.19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4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1월 중 남북교역액은 14,343만 달러로 전년 동월 12,730만 달러에 비해 12.7% 증가(전월 14,193만 달러 대비 1.1% 증가)
- 반입은 7,75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002만 달러에 비해 10.8% 증가(전월 7,453만 달러 대비 4.1%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3.3%, 전자전기제품 34.9%, 생활용품 8.5%, 기계류 6.5%, 화학공업제품 3.7% 등임.
- 반출은 6,58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727만 달러에 비해 15.0% 증가(전월 6,739만 달러 대비 2.3%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6.5%, 전자전기제품 31.2%, 화학공업제품 7.6%, 기계류 6.7%, 생활용품 5.1% 등임.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39.2만 달러로 전월 79.1만 달러 대비 50.4% 감소하고 1월 전체 반입액 7,758만 달러의 0.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32.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4%), 어패류 등 수산물이 7.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9%)를 차지했음.

*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199.7만 달러로 전월 247.0만 달러 대비 19.1% 감소하고 1월 전체 반출액 6,586만 달러의 3.0%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94.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0%), 분유 등 축산물이 1.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 합판 등 임산물이 1.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2.5달러(전체 반출액의 0.04%)를 차지했음.

□ 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2월 중 남북교역액은 15,061만 달러로 전년 동월 12,239만 달러에 비해 23.1% 증가(전월 14,343만 달러 대비 5.0% 증가)
- 반입은 8,11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092만 달러에 비해 14.4% 증가(전월 7,758만 달러 대비 4.6%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3.5%, 전자전기제품 33.9%, 생활용품 9.1%, 기계류 6.9%, 화학공업제품 3.6% 등임.
- 반출은 6,95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147만 달러에 비해 35.0% 증가(전월 6,586만 달러 대비 5.5%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7.3%, 전자전기제품 31.1%, 화학공업제품 6.0%, 기계류 7.1%, 생활용품 5.8% 등임.

□ 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29.9만 달러로 전월 39.2만 달러 대비 23.7% 감소하고 2월 전체 반입액 8,111만 달러의 0.4%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7.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2.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3%)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09.7만 달러로 전월 199.7만 달러 대비 5.0% 증가하고 1월 전체 반출액 6,951만 달러의 3.0%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175.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5%), 분유 등 축산물이 3.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5%), 합관 등 임산물이 4.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6%), 어패류 등 수산물이 26.3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12년 3월 중 남북교역액은 16,474만 달러로 전년 동월 15,631만 달러에 비해 5.4% 증가(전월 15,061만 달러 대비 9.4% 증가)
- 반입은 9,14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051만 달러에 비해 13.6% 증가(전월 8,111만 달러 대비 12.8%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48.2%, 전자전기제품 29.9%, 생활용품 8.7%, 기계류 6.7%, 화학공업제품 2.9% 등임.
- 반출은 7,32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7,580만 달러에 비해 3.3% 감소(전월 6,951만 달러 대비 5.4%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34.1%, 전자전기제품 27.3%, 기계류 9.5%, 화학공업제품 7.8%, 생활용품 6.1% 등임.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12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42.0만 달러로 전월 29.9만 달러 대비 40.5% 증가하고 3월 전체 반입액 9,148만 달러의 0.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29.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3%), 어패류 등 수산물이 12.5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12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91.1만 달러로 전월 209.7만 달러 대비 38.8% 증가하고 3월 전체 반출액 7,326만 달러의 2.9%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밀가루 등 농산물이 250.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4%), 분유 등 축산물이 3.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4%), 합관 등 임산물이 6.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8%), 어패류 등 수산물이 31.8달러(전체 반출액의 0.4%)를 차지했음.

표 1. 2012년 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42,994	321	0.4	농산물	925,053	1,948	3.0
참깨	28,450	53		쌀	600	1	
들깨	19,490	33		감자	2	0	
고추	2,820	5		대두	1	0	
밤	55,800	179		밀가루	184,750	84	
참기름	8,069	24		참깨	61,400	62	
들기름	3,946	7		들깨	23,300	23	
기타유지가공품	9,944	14		기타채유종실	2,050	1	
박류	14,400	0		사과	64	0	
인삼류	75	7		감	10	0	
				오렌지	1,821	1	
				기타과실	200	0	
				양배추	1	0	
				상추	1	0	
				시금치	3	0	
				무	20	0	
				당근	2	0	
				오이	1	0	
				파	32	0	
				마늘	1	0	
				고추	6,525	8	
				기타채소	27	0	
				밤	95,280	143	
				대두유	22,000	29	
				기타유지가공품	191	0	
				간장	83	0	
				고추장	3	0	
				기타소스류	740	1	
				향신료	337	1	
				커피조제품	8,344	34	
				초코렛	81	10	
				녹차	4	0	
				제조담배	115	11	
				소주	1,280	2	
				맥주	1,440	1	
				위스키	1,400	60	
				기타주류	70	1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정당	135	0	
				물	456	0	
				기타음료	20	0	
				비스킷	10	0	
				곡류가공품	101,631	320	
				빵	100,998	413	
				면류	89,359	270	
				기타농산가공품	219,665	439	
				견	600	31	
축산물	-	-	-	축산물	3,500	12	0.02
				소시지	2,508	9	
				로얄제리	444	1	
				기타낙농품	548	2	
임산물	-	-	-	임산물	12,165	12	0.02
				합판	3,673	5	
				섬유판	7,200	6	
				건축용목제품	148	1	
				기타목재생활용품	20	0	
				기타목재류	1,124	0	
수산물	41,930	71	0.09	수산물	49,060	25	0.04
툰	2,390	42		기타어류	400	1	
미역	39,540	29		미역	48,660	24	
합 계	184,924	392	0.5	합 계	989,778	1,997	3.0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7호(2012.1.1~1.31)

표 2. 2012년 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20,335	273	0.3	농산물	683,743	1,754	2.5
참깨	40,220	80		쌀	2,696	5	
들깨	17,430	33		밀가루	1,900	1	
고추	4,090	8		참깨	70,460	86	
밤	25,300	81		들깨	20,000	25	
참기름	13,103	34		해바라기씨	400	1	
들기름	7,416	14		사과	19	0	
기타유지가공품	12,776	22		감	5	0	
				양배추	1	0	
				시금치	1	0	
				파	8	0	
				마늘	1	0	
				고추	1,014	2	
				기타채소	7	0	
				밤	26,400	40	
				들기름	4,650	7	
				기타식물성유지	30	0	
				기타유지가공품	4	0	
				식물성액즙	34	0	
				간장	6	0	
				고추장	3	0	
				향신료	253	1	
				커피	3	0	
				커피조제품	10,576	38	
				코코아조제품	162	0	
				녹차	40	1	
				홍차	180	1	
				제조담배	975	32	
				인삼류	63	6	
				소주	3,550	4	
				맥주	3,130	3	
				기타주류	36	1	
				정당	150	0	
				물	4,710	4	
				과일주스	3	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기타음료	10	0	
				비스킷	13	0	
				곡류가공품	81,150	255	
				빵	119,185	478	
				면류	135,060	337	
				기타농산가공품	196,255	392	
				견	600	32	
축산물	-	-	-	축산물	9,522	37	0.05
				소시지	5,386	19	
				로얄제리	2,950	15	
				기타낙농품	1,186	3	
임산물	-	-	-	임산물	33,510	42	0.06
				합판	17,915	28	
				섬유판	15,110	10	
				파티클보드	10	0	
				기타목재생활용품	10	2	
				기타목재류	465	2	
수산물	37,200	26	0.03	수산물	525,746	263	0.2
미역	37,200	26		미역	525,746	263	
합 계	157,535	299	0.4	합 계	1,252,521	2,097	3.0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8호(2012.2.1~2.28).

표 3. 2012년 3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47,434	295	0.3	농산물	720,331	2,500	3.4
참깨	44,460	93		쌀	935	2	
들깨	12,370	26		밀가루	7,686	5	
고추	3,700	7		참깨	91,900	121	
밤	27,600	88		들깨	18,825	25	
참기름	19,310	52		기타채유종실	2,020	1	
들기름	1,605	4		오렌지	19	0	
기타유지가공품	11,789	23		고추	4,752	10	
박류	26,600	1		기타채소	65	1	
				기타화초	200	0	
				밤	62,400	94	
				기타산식물	1,000	3	
				들기름	3,300	6	
				기타유지가공품	360	1	
				기타소스류	931	2	
				향신료	262	1	
				커피	3	0	
				커피조제품	14,098	53	
				녹차	16	0	
				제조담배	1,890	75	
				소주	4,550	6	
				맥주	6,900	651	
				위스키	231	12	
				기타주류	393	1	
				정당	125	0	
				물	7,050	3	
				과일주스	18	0	
				기타음료	567	0	
				비스킷	46	0	
				곡류가공품	48,595	155	
				빵	148,779	562	
				면류	109,651	299	
				기타농산가공품	182,163	381	
				견	600	31	
				면	1	0	

(앞면에서 계속)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축산물	-	-	-	축산물	8,385	31	0.04
				소시지	5,343	16	
				로알제리	2,300	13	
				기타낙농품	742	3	
임산물	-	-	-	임산물	42,349	62	0.08
				합판	7,507	17	
				섬유판	10,422	9	
				건축용목제품	24,165	34	
				목재틀	10	0	
				기타목재생활용품	10	0	
				기타목재류	235	1	
수산물	163,920	125	0.1	수산물	635,808	318	0.4
미역	163,920	125		미역	635,453	318	
				기타해조류	355	0	
합 계	311,354	420	0.5	합 계	1,406,873	2,911	2.9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9호(2012.3.1~3.30).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7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2007	5,027	450	765,346	26,731	802	1,032,550	1,797,896	267,204
2008	31,243	482	932,250	36,202	813	888,117	1,820,366	△44,133
2009	37,307	486	934,251	41,293	771	744,830	1,679,081	△189,421
2010	39,800	448	1,043,928	44,402	740	868,321	1,912,249	△175,607
2011	33,762	363	913,663	40,156	676	800,192	1,713,855	△113,471
소 계	230,452	803	8,062,841	252,166	1,090	8,258,261	16,321,102	195,420
2012.1	2,743	188	77,575	3,382	410	65,857	143,432	△11,718
2012.2	2,809	179	81,106	3,519	414	69,507	150,613	△11,599
2012.3	3,147	203	91,478	3,746	412	73,259	164,737	△18,219
소 계	8,699	261	250,159	10,647	526	208,622	458,784	△41,536
총 계	239,151	804	8,313,000	262,836	1,092	8,466,883	16,779,883	153,884

주: 1)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9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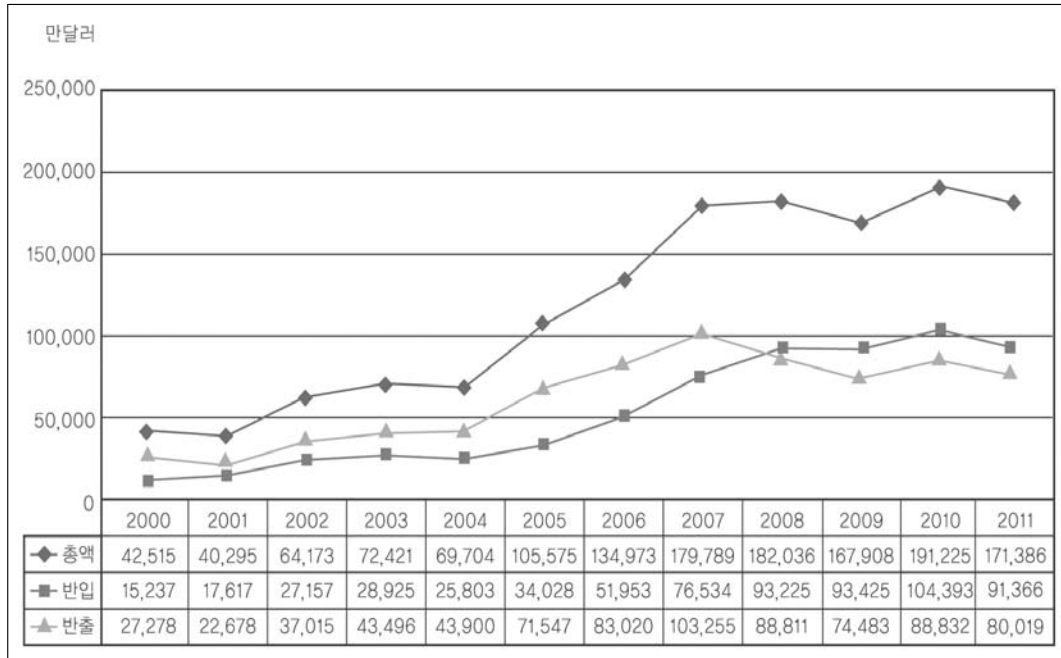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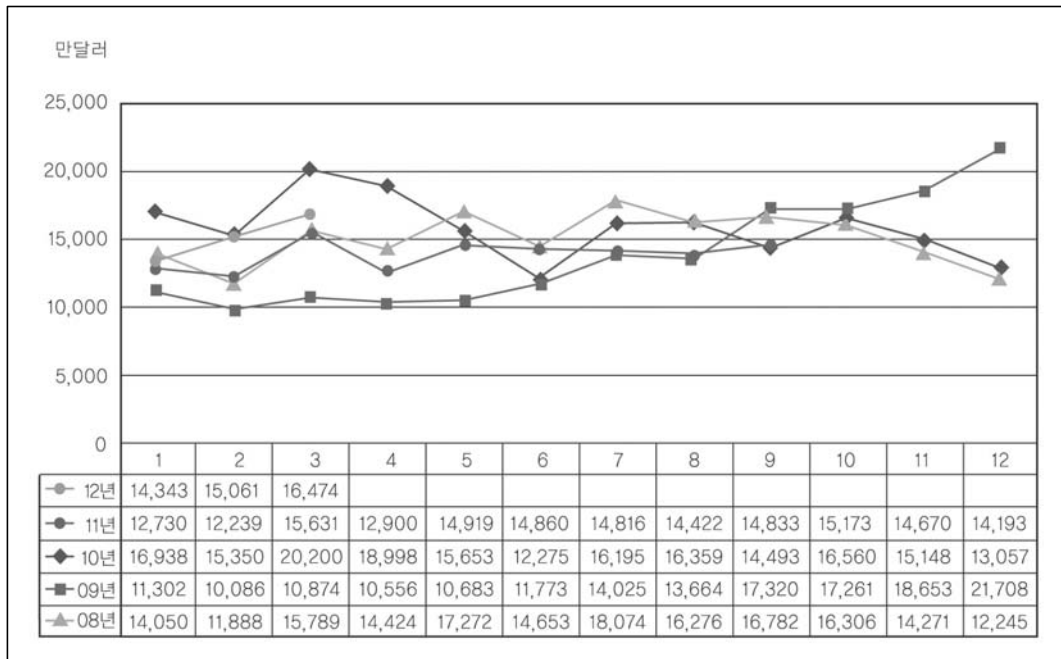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2007	58,207	64	406	115,436	174,113	127,906	1,329	4,848	1,297	135,380	309,493	△38,733
2008	70,653	-	183	137,058	207,913	65,516	1,669	6,278	4,685	78,238	286,151	△129,675
2009	49,845	15	283	151,851	201,994	30,127	1,055	1,398	3,144	35,723	237,717	△13,729
2010	25,001	-	113	63,141	88,255	36,324	1,513	794	2,661	41,292	129,547	△46,963
2011	3,343	-	0	2,770	8,418	31,931	641	318	2,167	27,467	35,885	19,049
소 계	517,879	3,317	51,145	1,023,544	1,598,210	969,558	26,662	29,742	27,642	1,046,103	2,644,313	△399,565
2012.1	321	-	-	71	392	1,948	12	12	25	1,997	2,389	△1,605
2012.2	273	-	-	26	299	1,754	37	42	263	2,097	2,396	△1,798
2012.3	295	-	-	125	420	2,500	31	62	318	2,911	3,331	△2,491
소 계	889	-	-	222	1,111	6,202	80	116	606	5,205	8,116	△5,894
총 계	518,768	3,317	51,145	1,023,766	1,599,321	975,760	26,742	29,858	28,248	1,051,308	2,652,429	△405,459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247~249,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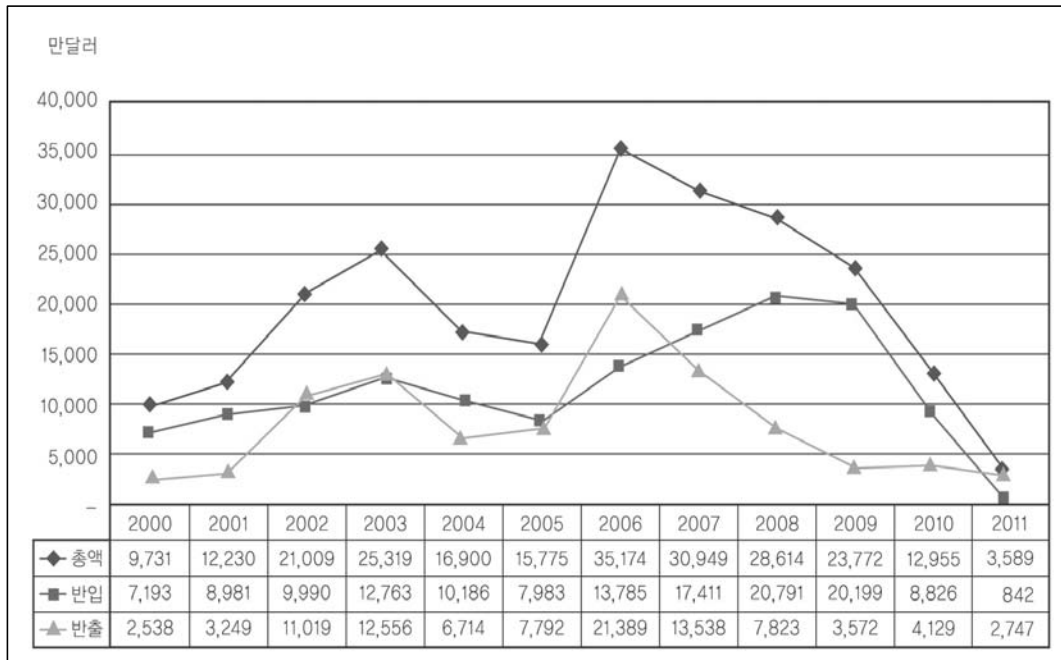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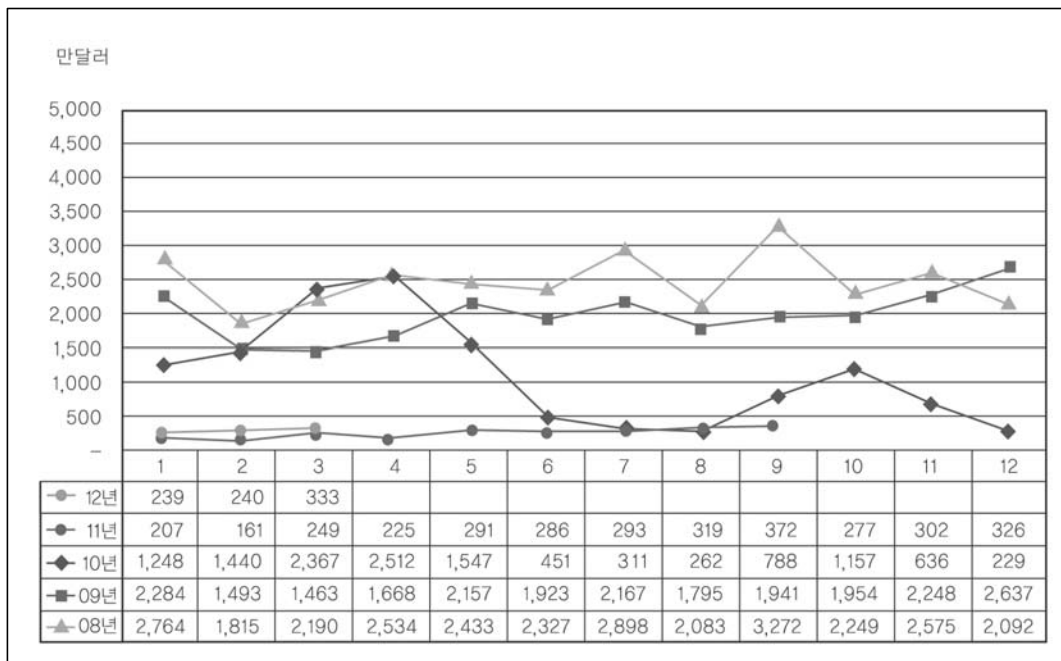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대북지원 동향

☐ 인천시 "올해 남북협력사업에 20억원 지원"

- 인천시는 8일 '2012년도 1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힘.
- 인천시는 이날 회의에서 북측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계층 지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학생 체육교류사업, 고려역사문화 공동연구를 위한 사회문화교류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힘.
- 인천시는 2004년 11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이후 해마다 시 예산으로 10억~40억 원씩 총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대북교류사업을 벌여왔음.
- 지난해에는 남북 공동 말라리아 방역사업,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사업, 남북 경협아카데미,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고자전거 지원 등의 사업을 벌였음.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인천시 "올해 남북협력사업에 20억원 지원"" 2012. 2. 8)

☐ 정부,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 또 승인

-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오후 2건의 대북 인도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다"며 "나눔인터내셔널은 황해북도 강남군 인민병원에 지원할 7천 만원 상당의 X레이 기기를, 유진벨재단은 평양과 평안남북도의 내성결핵센터에 지원할 9백 만원 상당의 진단시약과 의료소모품 등 의료지원물자 반출을 신청했다"고 전함.
- 나눔인터내셔널은 인천~남포 간, 유진벨재단은 평택~다롄~남포 해상경로를 이용해 북한에 지원물자를 보낼 예정임.

자료: <http://www.yonhopnews.com/> (연합뉴스, "인천시 "올해 남북협력사업에 20억원 지원"" 2012. 2. 8)

☐ 서울시, 올해 6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경평축구 대회와 서울시향의 평양공연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올해 6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완화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임.

- 서울시는 올해 44억원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투입, 인도주의적 동포애에 기반을 둔 6개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힘.
- 시는 우선 북한지역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유아용 영양식, 식량, 학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벌임. 이 사업에는 6개 사업 중 가장 많은 15억원의 기금이 들어감.
-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에 맞는 민간단체를 선정·지원해 동반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에는 10억원을 투입함.
- 평양 의과학학원의 낙후된 의료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의 평양 의과학학원 중앙연구소 현대화사업에도 10억원의 기금을 집행함.
- 이밖에 재난피해 지역에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구호 지원사업(5억원)과 묘목과 병충해 방제약 등 산림녹화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산림보호 강화 사업(3억원)을 추진함. 시민의 통일의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 사업(1억원) 역시 펼침.

자료: <http://www.yonhapnews.com/> (연합뉴스, "서울시, 올해 6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012. 2. 26)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2012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일부, 2012.2.22)

- 통일부는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했음

연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예정액 (천원)
1	(사)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통일준비를 위한 논의, 확산, 소통, 공감형성의 국민합의 기반조성	20,000
2	(사)겨레하나되기 운동연합	이산가족 자유상봉지원 사랑 나누기 한마당 및 통일공론화 등	25,000
3	(사)고양평화누리	청소년평화통일숲가꾸기운동 확산을 위한 "접경지역 청소년통일운동 프로그램"	20,000
4	(사)기독교 북한선교회	통일 세대 프로젝트 "남북한과 동서독 청년들이 함께하는 통일 연습" 독일통일 현장을가다	20,000
5	(사)남북사회 통합연구원	국민합의 기반강화를 위한 이념· 세대간 갈등해소 "한민족공공체 구현을 위한 열린 통일포럼 운영"	40,000
6	(사)남북청소년 교류연맹	청소년 통일 백일장 전국대회 및 통일교육	30,000
7	(사)대한민국ROTC 통일정신문화포럼	ROTC통일포럼 통일공론화 대회	10,000
8	(사)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평화와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민통선지역 및 북중접경지역 역사문화 순례	20,000
9	(사)동북아 공동체연구회	경제·안보융합 한반도 통일인식 공동체구축 전략 연구	15,000
10	(사)드림	남북의 진정한 화해를 위한 우리들의 한걸음	10,000
11	(사)디엠지미래연합	DMZ 미래길 걷기대회	25,000
12	(사)민족통일 불교협의회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한 범불교도 대회	20,000
13	(사)민족통일촉진회	통일인식함양 민족통일 시민강좌	10,000
14	(사)민주주의 정치철학연구소	통일준비를 위한 정치철학 이념 개발과 보급	20,000
15	(사)북한민주화 네트워크	공감·참여·확산을 통한 대국민 북한인권 공론화사업 "북한 인권, 시민·대학생들만나다"	20,000

연번	단체명	사업명	지원예정액 (천원)
16	(사)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40,000
17	(사)북한자원연구소	북한자원포럼 운영	15,000
18	(사)북한전략정보 서비스센터	전략정보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정보서비스구축 및 세미나	20,000
19	(사)서울평양학회	대학생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준비콘서트	30,000
20	(사)세계평화 청년연합	2012글로벌 통일 드리머 양성	15,000
21	(사)아시아사회 과학연구원	아사연 국제학술 시민포럼	10,000
22	(사)열린북한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미리보는 통일 한반도"	25,000
23	(사)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2012청년, 대학생들의 통일문화 한마당	20,000
24	(사)탈북자동지회	북한체험 수기 공모, 강연활동 전개	20,000
25	(사)통일교육문화원	통일 비전 콘서트!	30,000
26	(사)통일문화연구원	문화로 여는 남북한 통일이야기	20,000
27	(사)통일미래 사회연구소	통일을 위한 국민공간 팟캐스트 "소원을 말해봐"	20,000
28	(사)코리아 정책연구원	평화통일 증진을 위한 학술연구 및 홍보사업	10,000
29	(사)평화를만드는 여성회	체험과 놀이를 통한 "평화통일로 한걸음 더성큼!" 프로젝트	20,000
30	(사)평화문제연구소	SNS를 활용한 "통일미래비전" 확산 프로그램	30,000
31	(사)평화통일국민포럼	범국민 통일의식 확산활동	30,000
32	(사)평화통일 탈북인연합회	북한문화 사랑방 모임 등	10,000
33	(사)평화한국	청·장년세대 평화통일 역량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젝트	20,000
34	(사)행복한통일로	청소년글로벌 통일 인재육성 통일스피치대회 "HappyUniProject"	25,000
35	(사)NK지식인연대	북한사회 바로 알리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SNS서비스활성화	25,000
36	(재)미래나눔재단	남북한 청년 통일맞이 프로젝트	10,000
37	(재)한국통일진흥원	평화통일 의식함양 학술 및 연구활동	30,000
38	(재)한반도미래재단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20,000

□ 2012년 4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지출 실적

(통일부, 2012.5.2)

연 도	내 역		금 액 (백만원)
무상 지원	사회문화 협력지원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지원 2건	1,032
	이산가족 교류지원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3건	30
	인도적지원	대북 수해피해 지원 1건	48
	경협기반 조 성 (무상)	개성공단 투자기업 경험보험금 지급 1건	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및 위탁사업비 지원 8건	446
		「코리아DMZ협의회」 국내외 협력기반 확충 지원 1건	63
		남북관리구역 통행체계 보강 지원 6건	513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2차년 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 11건	1,082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7건	5,028
		남북교역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건	296
		개성공단 응급의료시설 건립 지원 1건	1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 버스회차장 확장 지원 1건	380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지원 1건	1,357
	소 계 (44건)		10,277
유상 지원	경협기반 조 성 (유상)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소요경비 지원 1건	770
		개성공단 출퇴근버스 주차장 및 자동차 검사소 설치 지원 1건	41
	교역경험 자금대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120건	13,902
	소 계 (122건)		14,713
총 계 (166건)		24,990	

□ 수출입은행,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기일 사전 통지

(수출입은행, 2012.5.4)

-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5월 4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총재에게 다음달 7일 대북 식량차관의 첫 번째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함을 통지하였음.
- 이번 상환기일 통지는 실무적 차원에서 상환기일, 상환금액 등을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고지한 것임.
-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200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북한에 총 7억 2,000만 달러에 상응하는 260만 톤 규모의 쌀과 옥수수를 차관으로 제공한 바 있음.
- 이번에 상환기일을 통지한 원리금은 583만 달러로, 2000년 제공한 차관 8,800만 달러에 대한 첫 번째 상환분에 해당함.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12.4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목표 달성률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등
10차 '04.1~'12	5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등

(계속)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목표 달성률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1차 '05.1~122)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12차 '06.1~12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13차 '07.1~12	-	9,966	-	한국 2,437, 중앙긴급구호자금 1,110, 호주 585, 스웨덴 532, 독일 506, 유럽연합 398, 이탈리아 377, 노르웨이 335 등
14차 '08.1~12	-	4,358	-	한국 1,149, 독일 499, 스위스 430, 스웨덴 415, 이탈리아 370,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340, 노르웨이 309, 네덜란드 202 등
15차 '09.1~12	-	4,193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900, 스웨덴 833, 노르웨이 470, 캐나다 330, 호주 261, 이탈리아 123, 한국 109, 스위스 69 등
16차 '10.1~12	-	2,178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344, 스위스 302, 노르웨이 231, 스웨덴 85, 독일 79, 이탈리아 43, 프랑스 40 등
17차 '11.1~12	-	9,771	-	유엔기구 1,682,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541, EU 1,429, 스웨덴 894, 스위스 838, 호주 705, 러시아 500, 브라질 402 등
18차 '12.1~12	-	1,785	-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1,097, 캐나다 491, 스위스 152, 프랑스 26, 스웨덴 10, 덴마크 9
총 계	-	190,045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2)

표 2. 2011년도 지원창구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4.30)

지원창구	지원국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FAO	CERF	1,89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12-FAO-001)
국제적십자연맹	스위스	544,070	인도지원
Save the Children	덴마크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스웨덴민간구호기구 (Swedish Civil Contingencies Agency)	스웨덴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	프랑스	258,398	
UNICEF	캐나다 CERF	1,003,009 1,225,000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MO13666) 94개 리동 주민에 대한 긴급보건서비스 지원(12-CEF-003)
		소계 2,228,009	
UNPF	CERF	150,000	모성 안전 지원(12-FPA-001)
WFP	스위스	436,017	스위스 낙농식품 지원(7F-00972.15)
	스위스	544,070	곡물지원
	캐나다	3,906,250	긴급식량지원(MO13689)
	CERF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소계 11,354,626	
WHO	CERF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12-WHO-004)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2)

표 3. 2011년도 분야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4.30)

분 야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농업	CERF	FAO	1,89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12-FAO-001)
조정 및 지원서비스	스웨덴	스웨덴민간구 호기구 (MSB)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식량	스위스	WFP	436,017	스위스 낙농식품 지원(7F-00972.15)
	스위스	WFP	544,070	곡물지원
	프랑스	TGH	258,398	
	캐나다	WFP	3,906,250	긴급식량지원(MO13689)
			소계 5,144,735	
보건	CERF	UNICEF	1,225,000	94개 리동 주민에 대한 긴급보건서비스 지원(12-CEF-003)
	CERF	WFP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CERF	WHO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12-WHO-004)
	CERF	UNPF	150,000	모성 안전 지원(12-FPA-001)
	캐나다	UNICEF	1,003,009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MO13666)
			소계 10,071,292	
미분류	덴마크	Save the Children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스위스	국제적십자연맹	544,070	인도지원
			소계 634,228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2)

표 4. 2011년도 원조국별 대북 지원 실적 (2012.1.1~4.30)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지원내역
중앙긴급구호 기금(CERF)	WFP	6,468,289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12-WFP-006)
	FAO	1,897,244	취약농민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한 긴급지원 (12-FAO-001)
	UNICEF	1,225,000	94개 리동 주민에 대한 긴급보건서비스 지원(12-CEF-003)
	WHO	1,224,994	모성 및 어린이 생존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12-WHO-004)
	UNPF	150,000	모성 안전 지원(12-FPA-001)
		소계 10,965,527	
캐나다	UNICEF	1,003,009	급성영양실조 종합관리(MO13666)
	WFP	3,906,250	긴급식량지원(MO13689)
		소계 4,909,259	
프랑스	TGH	258,398	
덴마크	Save the Children	90,158	긴급구호 준비 자금
스위스	국제적십자연맹	544,070	인도지원
	WFP	436,017	스위스 낙농식품 지원(7F-00972.15)
	WFP	544,070	곡물지원
		소계 1,524,157	
스웨덴	스웨덴민간구호 기구(MSB)	99,405	함대 관리자 파견

주: 지원액은 북한에 이미 전달되었거나(contributed) 상당히 구체화된(committed) 액수를 모두 포함함.

CERF(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12)

2.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기구 동향

가. 국제기구

☐ WFP, 대북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내달 종료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긴급식량 지원을 다음달 종료하고 4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대폭 축소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WFP는 2010년 7월부터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250만 명에 대한 영양지원사업을 해왔지만,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작년 2월 북한의 식량상황을 조사한 유엔 전문가들이 610만 명이 굶주릴 수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두 달 뒤 지원대상을 350만 명으로 확대하는 긴급식량지원사업을 발표함.
- 한편 캐나다 정부가 개별국가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390만 달러를 WFP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이날 전함.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대북취약계층 긴급식량지원 내달 종료", 2012.2.23)

☐ FAO "북한에 구제역 백신 300만두 분 전달"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29일 "북한 평양시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 4차례에 걸쳐 300만두 분의 백신을 제공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에 구제역 예방을 위한 첫 백신은 11월 중순 전달됐으며 전국에 있는 가축들에 백신을 접종하는 등 대대적인 구제역 예방 활동도 펼쳐졌다"고 설명함.
- 이번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은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제공한 미화 약 80만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됨.
- 북한에서는 2010년 12월 평양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2011년 3월까지 북한 전역의 139개 농장에서 돼지 총 1만 여 마리, 소 1천여 마리, 염소 170여 마리 등이 구제역 감염으로 확진 판정됐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FAO "북한에 구제역 백신 300만두 분 전달"", 2012.3.30)

□ WFP, 대북 긴급식량지원 석달 연장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3월 만료 예정이던 대북 긴급식량지원 사업을 3개월 더 연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지원 담당관은 “7월부터 새로운 대북식량지원 사업이 시작된다”며 “신규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지난해부터 진행하던 긴급지원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힘.
- 나나 스카우 북한 지원 담당관은 지난달 북한 주민 210만여 명에게 약 1만3천톤의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분이 함유된 혼합식량(blended foods)을 제공했다고 전함.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WFP, 대북 긴급식량지원 석달 연장", 2012.4.4)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스웨덴 NGO, 대북사업 철수

- 스웨덴의 구호단체 피엠유 인터라이프가 16년 동안 계속해 온 대북 지원 사업을 종료하고 철수한다고 밝힘.
- 피엠유 인터라이프(PMU Interlife) 레나르 놀발 인도주의업무 담당관은 27일 “올해부터 새로운 3개년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과 유럽개발협력청(EuropeAid)로 부터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함.
- 놀발 담당관은 “대북 사업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자금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며,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이 현재 모든 협력 비정부기구들을 재평가하고 추가 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피엠유 인터라이프는 1995년부터 북한에서 농업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지난 2008년부터는 스웨덴개발협력청으로부터 1천1백만 크로나(미화 166만 달러)를 지원받아 북한에서 씨감자 지원 사업을 진행했음.
- 피엠유 인터라이프는 4년 동안 평안북도의 3개 협동농장과 황해남도의 3개 협동농장에서 씨감자 배양법을 전수하고 트랙터 등 농기구를 지원하며, 온실

과 씨감자 저장고를 세웠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스웨덴 NGO, 대북사업 철수", 2012.2.28)

□ 北, 작년 중국서 곡물 37만 톤 수입

-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이 37만 톤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됨.
- 북한이 작년 중국에서 곡물을 수입하는 데 지출한 금액은 1억 6,619만 달러로 2010년 1억 1,516만 달러보다 44.3% 늘었음. 한편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35만 5,036톤(중량 기준)으로 2010년 28만 7,303톤에 비해 23.6% 늘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北, 작년 중국서 곡물 37만 톤 수입", 2012.2.1)

□ 아일랜드 NGO, "대북 식량, 식수 사업 지원"

-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는 2012년 황해북도 금천군과 신계군, 평안남도 회창군 등 3개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늘리고 주민 8만 4천여명의 영양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기반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함.
- 황해북도 신계군과 평안남도 회창군에는 염소우유 처리와 식품가공 처리 시설, 온실 등을 건설하고 황해북도 금천군에는 물고기 부화장과 염소우유 처리 시설 등을 세우게 됨.
- 황해북도 금천군에는 중력을 이용한 양수시설과 오물 처리 시설을 짓고 420가구와 주요 기관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황해북도 신계군에는 오물 수거함을 세우기로 했음.
- '컨선 월드와이드'는 올해 대북 지원사업은 유럽연합과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 아일랜드 외교부 개발협력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진행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아일랜드 NGO, "대북 식량, 식수 사업 지원", 2012.3.21)

☐ 독일 NGO, "북한에 쌀 20톤 지원"

- 독일의 국제자선단체가 북한에 쌀 20톤을 지원했다고 밝힘. 독일의 국제자선단체인 '휴미디카'의 패트릭 카마디 식량지원 국장은 26일 "북한에 지원한 쌀은 황해남도 해주시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사용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함.
- 카마디 식량지원 국장은 "북한 정부가 약 한 달 반 전에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해 중국에 있는 협력 기관의 도움으로 짧은 시간에 쌀을 구입해 북한에 보낼 수 있었다"고 밝힘.
- 카마디 국장은 "지원 식량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추가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안에 휴미디카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독일 NGO, "북한에 쌀 20톤 지원"", 2012.3.27)

☐ 헝가리 NGO "北 사리원에 의료지원"

- 헝가리의 민간구호단체 HBAid(Hungarian Baptist Aid) 대북지원 담당자는 29일 "최근 사리원의 소아병원 등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전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HBAid 대북지원 담당자는 "최근 북한으로부터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헝가리는 쌀을 지원하지 않고 밀가루, 영양분유, 옥수수 등을 보내고 있다"고 말함.
- 대북지원 담당자는 "북한의 사리원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헝가리의 세케슈페헤르바르의 자매도시였다"며 이런 인연으로 사리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함.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헝가리 NGO "北 사리원에 의료지원"", 2012.3.30)

☐ 폴란드, "북한에 설탕 166톤 지원"

- 폴란드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해 설탕 166톤과 평양에 감자저장고를 지원했

음.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평양 주재 폴란드대사관은 최근 웹사이트에서 “폴란드가 기부한 자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가 구입한 설탕 166톤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힘.

- 폴란드 대사관은 “이번에 지원된 설탕으로 북한 내 WFP 공장에서 고열량 가공식품과 초콜렛 과자를 만들어 동북부 지역의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폴란드는 외무부의 개발협조자금으로 지난 해 9월 평양시 력포구역 추당협동농장에 감자저장고를 건설함.
-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초에도 폴란드의 민간구호단체를 통해 함경남도 함흥지역의 정형외과에 의약품과 수술용 장갑 등을 지원했음.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폴란드, "북한에 설탕 166톤 지원"", 2012.4.10)

□ 이란, "北에 쌀, 밀가루 등 지원"

- 이란이 북한에 85톤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이란 적신월사 관계자들이 22일 밝힘.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푸야 하지안 이란 적신월사 홍보부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물품 85톤이 22일 평양의 순안공항에 도착했다고 말함. 하지안 부장은 “지원물품에는 밀가루와 분유, 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순안공항 도착 후에 북한 적십자사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고 밝힘..

자료: <http://www.nocutnews.co.kr/> (노컷뉴스, "이란, "北에 쌀, 밀가루 등 지원"", 2012.4.24)

3. 북중 교역 동향

● 북한의 곡물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147	6,304	155	737	288	7,631
2	-	136	146	0	122	90	496
3	-	2,718	543	0	5,392	172	8,825
4	-	3,002	2,069	80	5,585	84	10,820
5	1	8,347	2,778	39	6,852	12	18,029
6	0	2,995	1,702	0	3,392	6,420	14,509
7	0	3,118	2,406	122	1,723	163	7,532
8	0	4,706	5,396	0	7,166	4,521	21,789
9	0	3,726	2,709	0	6,856	1,556	14,847
10	0	15,636	2,469	900	4,375	78	23,458
11	0	697	21,109	119	4,171	19	26,115
12	0	651	7,417	120	3,927	33	12,148
2011.1-12	1	45,879	55,048	1,535	50,298	13,436	166,197
2012. 1	0	764	326	0	1,850	633	3,573
2	0	117	653	29	1,705	398	2,902
3	0	800	2,342	145	7,730	156	11,173
2012.1-12	0	1,681	3,321	174	11,285	1,187	17,648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보 리 1003	옥수수 1005	쌀 1006	잡 곡 1007~08	밀가루 1101	두 류 1201	합 계
2011. 1	-	600	10,815	240	1,951	480	14,086
2	-	470	312	0	295	145	1,222
3	-	9,050	1,117	0	13,692	265	24,124
4	-	9,819	3,937	123	14,069	130	28,078
5	1	27,491	5,410	60	17,348	18	50,328
6	0	9,544	3,603	0	8,543	9,645	31,335
7	0	10,012	4,703	195	4,243	231	19,384
8	0	13,286	10,417	0	17,458	6,817	47,978
9	0	10,200	4,981	0	16,785	2,236	34,202
10	0	41,380	4,707	2,500	10,662	120	59,369
11	0	1,946	29,800	184	10,216	30	42,176
12	0	1,953	12,440	0	9,701	55	24,149
2011.1-12	1	135,751	92,242	3,302	124,963	20,172	376,431
2012. 1	0	2,309	615	0	4,545	910	8,379
2	0	401	1,241	50	4,222	625	6,539
3	0	2,226	4,172	230	19,193	240	26,061
2012.1-12	0	4,936	6,028	280	27,960	1,775	40,979

주 : 2012년 1, 2월의 두류 수입량은 톤 당 평균 수입가격을 각각 700달러, 640달러로 가정하고 추산한 것임.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2년 1~3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41,000 여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9,400톤에 비해 4% 가량 증가함.
- 2012년 첫 3개월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곡종별 비중은 옥수수 12%, 쌀 15%, 밀가루 68%, 콩 4%임. 2011년 같은 기간의 곡종별 수입 비중은 옥수수 27%, 쌀 31%, 밀가루 40%, 콩 2%였음. 따라서 지난해와 비교할 때 금년에는 밀가루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옥수수와 쌀 비중이 감소함.
- 2012년 1~3월 동안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전체 곡물의 톤당 평균 도입 가격은 43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평균 도입 가격과 동일함.
- 금년에 도입한 곡물의 곡종별 수입 단가는 옥수수 341달러, 쌀 551달러, 밀가루 404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짐 이는 금년도 중국의 옥수수 작황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과 무관치 않음.
- 지난해에 비해 밀가루와 콩 가격도 상승하였으나 쌀 가격은 소폭 하락하였음.

● 북한의 비료 수입 동향

북한의 대중 비료 수입 실적, 2011~2012

단위 : 수입액(천 달러)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 1	72	-	0	-	72
2	2,651	-	0	-	2,651
3	1,667	-	0	41	1,708
4	4,772	4	1	2	4,779
5	13,870	0	0	0	13,870
6	16,714	0	0	88	16,802
7	53,557	0	0	1,300	54,857
8	747	0	0	250	997
9	0	0	0	0	0
10	134	0	0	2	136
11	0	0	6	0	6
12	3	0	0	2	5
2011.1-12	94,188	4	7	1,684	95,883
2012. 1	0	0	0	2,533	2,533
2	0	0	0	246	2,779
3	0	5	0	0	5
2012.1-12	0	5	0	2,779	2,784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단위 : 수입량(톤)

품 목 HS코드	N 3102	P 3103	K 3104	기 타 3105	합 계
2011.01	151	-	1	-	152
2	15,064	-	-	-	15,064
3	10,151	-	0	99	10,250
4	21,755	40	1	3	21,799
5	67,067	0	0	0	67,067
6	75,844	0	0	220	76,064
7	156,934	0	0	3,463	160,397
8	3,365	0	0	555	3,920
9	0	0	0	0	0
10	300	0	0	5	305
11	0	0	5	0	5
12	11	0	0	3	14
2011.1-12	350,641	40	7	4,348	355,036
2012. 1	0	0	0	6,089	6,089
2	0	0	0	401	401
3	0	40	0	0	40
2012.1-12	0	40	0	6,490	6,530

자료 : <http://db.kita.net>(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

- 2012년 1~3월 동안 북한은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총량은 6,53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466톤에 비해 크게 감소함.
 - 금년 1월만 해도 북한은 중국에서 6,089톤의 비료를 수입하였으나 2월과 3월에는 각각 401톤, 40톤만을 수입하여 1월 이후 계속해서 비료 수입이 줄고 있음.
 - 금년 들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비료의 3요인 질소, 인산, 칼리 비료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타 비료를 수입함.
 - 금년 들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의 양이 크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종 비료를 수입하지 못한 것은 수출국인 중국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최근 중국은 물가 안정, 그 중에서도 식량 가격의 안정을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료 사용을 늘려 곡물 생산량을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 비료의 대외 수출을 억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북한이 중국에서 비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년 농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안을 찾기 어려움.
- 현재 북한은 홍남화학기업연합소의 주체비료 생산시설이 거의 완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언제부터 비료 생산을 개시할지는 확실치 않음.
 - 금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비료 수입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북한의 비료 사정은 주체비료 생산시설의 조속한 완공에 달려 있음.
 - 북한은 화학비료 부족을 유기질비료의 공급 증대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만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는 원료마저 부족하여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임.
 - 북한은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유기질비료 생산을 독려하고 있으나 축산의 위축으로 인해 유기질비료의 원료인 축산분뇨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PART

5

북한의 농업관련연구



유기농법과 농업생산¹⁾

김 원 길

-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면 주체농법의 요구를 농사에 철저히 구현하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농업생산에 적극 받아들여야 함.
- 유기농법은 농작물의 부산물과 집짐승의 배설물을 비료로 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고 우렁이와 같은 초식동물을 이용하여 김을 제거함으로써 농업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작물의 생산량과 질을 개선함.
- 유기농법은 무엇보다도 부침땅의 지력을 개선하고 농사에 유리한 토양조건을 지어줌으로써 농업생산의 발전을 담보함.
 - 미생물비료와 유기질비료, 발효퇴비는 토양속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많은 열을 내므로 땅속 온도도 높여주어 농작물 생육에 좋은 조건을 조성함.
- 유기농법은 또한 유기화합물 형태의 식물영양소를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농작물의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물질을 원만히 보장해줄 수 있게 함.
 - 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에는 농작물에 필요한 질소, 린, 칼리움을 비롯한 다량 미량원소가 종합적으로 들어있어 농작물이 생육하는 전기간 요구하는 영양물질을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공급하여 줌으로써 농업생산을 늘릴 수 있게 함.
- 유기농법을 발전시키고 농업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에 풍부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농작물의 성장과 결실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음. 또한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미생물농약, 천적동물, 생물농약 등을 이용하여 김과 해충을 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 화학농약, 원유

1) 경제연구, 2012년 제1호(누계 154호), 2012.

등 영농자재 구입에 들던 자금도 훨씬 절약하면서도 농업생산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음.

- 유기농법을 적극 받아들이자면 우선 농산과 축산을 잘 배합해야 함. 미생물비료와 유기질비료,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를 잘 꾸려놓고 그 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균중적운동으로 유기질원천을 이용하여 자급비료 생산을 늘려야 함.
- 또한 유기농법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여러 가지 효능 높은 유기질비료를 더 많이 개발하며 유기질비료 생산을 공업화하여 농업생산실천에서 성과가 나게 해야 함.

농업부문에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 ²⁾

홍 철 훈

-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 내부부문 상호간에 생산소비적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농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농업생산활동이 닫힌 고리를 형성하도록 하는 생산체계를 말함.
- 즉 생산이나 생활과정에 나오는 모든 폐설물을 자원화하여 그것을 다시 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생산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로 줄이고 농업생태계의 물질생산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농업생산체계를 의미함.
-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유기질비료의 생산과 이용임. 유기질비료는 농부산물과 사람이나 짐짐승의 배설물과 같은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비료로서 농작물의 영양물질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토양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개량함으로써 지력을 높여 식량과 먹이생산을 늘리는데 결정적 작용을 함.
-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짐짐승기르기임. 짐짐승의 배설물은 유기질비료의 중요한 원천으로 짐짐승과 물고기의 보조먹이원천, 버섯과 지렁이 기르기의 주요 원료가 되므로 짐짐승기르기는 순환고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서는 짐짐승의 먹이생산 또한 중요함. 짐짐승의 먹이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먹이생산량을 늘리고 그 이용률을 높이며 대용먹이, 비알곡 먹이를 적극 이용하여 먹이밭면적 또는 먹이생산에 필요한 알곡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문제가 중요함.

2) 경제연구, 2012년 제1호(누계 154호), 2012.

-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서는 또한 메탄가스생산이 중요함. 메탄가스의 생산은 물질순환과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고리로서 유기질비료생산과 전력생산, 농촌의 댕감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 구성상 특성으로 하여 다양한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함.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형태에서는 일련의 차이는 있으나 이용과정에는 알곡과 남새 뿐만 아니라 고기와 알을 비롯한 축산물 그리고 버섯이나 물고기 등과 같은 부업생산물이 생산되게 됨.
-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농업경영활동에서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함. 에너지 이용과 물질 및 자금순환의 측면에서 여러 생산물의 생산과정이 상호 이롭게 작용하게 함.
-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또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 농업생산물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량을 대폭 줄여 그로 인한 토양의 오염을 막고 농업생산물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
-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 형태에는 농산, 축산의 단순한 결합형, 메탄가스생산공정을 넣은 농산, 축산결합형, 농산, 축산, 양어, 지렁이 기르기 결합형, 농산, 축산, 양어, 버섯, 지렁이 기르기, 메탄가스생산결합형 등이 있음.

E02-2012-01 KREI 북한농업동향 제14권 제1호

찍 은 날	2012. 4	펴낸날	2012. 4
발 행 인	이 동 필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크리커뮤니케이션 (代)2273-1775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